



주님의 숲 기도원 개원예배를 드린 후 모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했다.



월드미션대학교가 학위수여식을 동양선교교회에서 개최했다.

## 월드미션대 임성진 총장 취임 제27회 학위수여식 거행

월드미션대학교 제27회 학위수여식과 총장 이취임식이 2일 오후 1시 동양선교교회(담임 김지훈 목사) 분당에서 열렸다. 월드미션대학교는 이날 졸업식에서 학부 과정 39명, 대학원 과정 54명 등 총 93명의 졸업생을 배출했으며 임성진 부총장이 송정명 총장의 뒤를 이어 신입 총장에 취임했다.

송정명 전 총장은 “부단한 몸부림이 뒤따라야”라는 주제의 훈화를 통해 “우리가 나아가 할 사역지의 상황은 제4차 산업혁명과 다원주의로 인한 녹록지 않은 환경에 있다”면서 “이런 변화의 현장에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부단한 몸부림이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총장 이취임식에서는 신선목 교수의 인도로 세계복음연합회 경증회장 윤경호 목사가 기도하고 ATS의 시니어 디렉터인 레스터 루이즈 박사가 설교했다. 주익성 동

문화장이 송정명 전 총장에게 공로패를 전달하고 윤성환 이사장이 임성진 신임총장에게 취임패를 전달했다.

송 전 총장은 “지난 6년간 월드미션대학에서의 사역은 제 평생 가장 보람된 사역이었다”면서 “동역해 주신 교수진들과 교직원 학우들에 감사하다. 날마다 월드미션대학을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말했다. 임 총장은 “기독교계는 인본주의와 개인주의, 반기독교 문화 등으로 인해 목회 지망생 감소라는 제약 가운데 있지만, 학생들이 사역 현장에서 유용한 사역자로 쓰임 받도록 사역 중심의 실질적인 능력을 습득하도록 교육내용을 수정했다”면서 “이론과 사역 능력을 갖추게 함으로 변화하는 시대에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월드미션대학은 현재 제27회 졸업식까지 학사, 석사, 박사 등 총 922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 이민사회와 세계 변화시킬 '유다의 집' 되길 주님의 숲 기도원 개원예배 드려

주님의 숲 기도원(원장 정중호 목사)이 지난 5월 27일 주일 오후 4시에 개원예배를 드리고 선교를 위해 사도 바울과 같은 지도자를 세우는 영육의 재충전의 전당이 될 것을 다짐했다.

고승희 목사(아름다운교회 담임)는 “주님의 숲 기도원을 통해서 수많은 가정이 회복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동역자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10년 동안 이 장소들을 위해 기도했고 기적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원을 개원하게 됐다”고 전했다.

민중기 목사(충현선교교회 담임)는 “마가의 다락방이 열두 사도들이 성령충만을 입었던 곳인 것처럼

다메섹의 유다의 집은 사도 바울이 결정적으로 회심하는 장소”라면서 “이 기도원이 아나니아와 바울을 안수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한 그런 곳이 되길 바란다”고 설교했다.

이곳을 담당하게 된 정중호 목사는 “60세가 넘어 신학 공부를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서 있다. 내 힘이 아닌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순종하겠다”면서 “남가주에 기도하기 원하는 한인 1세와 2세들의 기도처로서 세우실 것”이라고 인사했다. 그는 “이민사회와 세계를 변화시킬 위대한 지도자가 주님의 숲 기도원을 통해서 배출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예배는 고승희 목사의 인도

로 김두환 장로가 기도한 후에 민중기 목사가 “그 기도의 집으로 가라”(행9:10-19)는 제목의 설교를 전했다. 민 목사의 설교 후 엘무체 찬양팀의 특송, 김영환 목사의 축사, 정중호 목사의 광고, 오묘한 목사의 축도로 모든 행사를 마쳤다.

한편, 주님의 숲 기도원은 해발 7천 피트 높이의 샌버나디노 산맥에 위치해 있다. 이 지역은 음이온이 풍부한 청정지역으로 여름에는 등산, 겨울에는 스노서핑과 스키를 즐길 수 있고, 20마일 정도 올라가면 레이크 애로우헤드를 볼 수 있다.

주소) 32900 Conifer Camp Rd. Running Springs, CA 92382  
 전화) 626-810-3455

## 반동성에 세미나, 서적, 설교까지 불법되나?

동성애자를 비롯한 성소수자 문제와 관련해 종교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할 가능성이 높은 캘리포니아의 한 법안이 지난 30일부터 주 상원에서 심의에 들어갔다. AB2943 법안은 지난 2월 16일 에반 로 의원의 주도로 발의됐으며 4월 19일

주 하원에서 50대 18로 통과된 바 있다. 민주당이 절대 다수인 하원을 무사히 통과한 이 법안은 역시 민주당이 다수인 상원도 통과할 가능성이 높으며 그동안 동성애 법안에 호의적인 태도를 보여온 제리 브라운 주지사의 서명도 거의 확실시 된다.

캘리포니아 주는 이미 공립학교 내 동성결혼 교육, 공립학교를 포함한 공공기관에 성중립 화장실 설치, 미성년자 동성애 치료 금지 등 성소수자들의 권리 확대에 가장 앞선 주로 꼽힌다.

AB2943은 성적 지향을 변경하려

는 각종 서비스를 광고, 제공, 판매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한다.

이 법이 통과되면 동성애적 성적 지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돕기 위한 각종 광고나 홍보 활동, 실제 치료나 관련 세미나는 물론, 반동성애적 내용의 목회적 상담과 조언도 불법으로 규정될 수 있다. 일부에서는 동성애를 반대하는 설교, 동성애를

반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성경의 판매까지도 불법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한편, 이에 대해 남가주한인목사회(샘 신 회장)와 아메리카한인연합재단(이우호 회장) 등 한인단체들은 최근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이에 대해 남가주 교계가 경각심을 가질 것을 촉구한 바 있다.

**미용자격증  
미용고급기술**

김인태  
**한인국가대표 아시아 챔피언 출신 강사 직강**  
**QCA Beauty College**  
**T.213-232-3837**

**그린카피어**  
 Green M. Wild IMAGE SYSTEMS  
 Office and Industry Technology Solutions  
 Lease/Rent/Sale/Repair/Toner/Maintenance  
 칼라복사/칼라프린트/칼라스캔/팩스/네트워킹  
 교회 및 자선, 비영리단체는 특별할인  
 greenmwild@gmail.com  
 TEL: 213 705 7778

**bizhub**  
 KONICA MINOLTA

**ASE CERTIFIED 시온 Auto Tech**  
 믿고 맡겨 주시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Warranty for All Work Performed**

■ Brake Service      ■ 전기계통  
 ■ Tune-Ups            ■ 10K Service  
 ■ Computer Diagnostic   ■ A/C Service

· 월~금 : 8AM~6PM, 토 8AM~4PM · 3200 W. Olympic Blvd., LA, CA 90006  
**T. (323) 735-3180**

## 목회자 세미나

“좋은 목사, 건강한 교회”

6/11(월) 10am~4:50pm | 6/12(화) 8am~4:50pm | 6/13(수) 8am~1pm

**Main Speaker**  
  
**김인중 목사**  
 (안산 동산교회 원로목사)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네 기둥”  
 “나는 행복한 전도자”의 저자

**Guest Speaker**  
  
**김재문 목사**  
 (사랑의 빛 선교교회 원로목사)

회비: \$100 [ 6/6(수) 까지 등록시 \$50 ] (간단한 아침식사 및 점심식사 제공)  
 등록: 818-832-6628, 카톡ID/ pseminar (문의: 이준상 목사, 김수진 간사)  
 장소: 에브리데이교회 (17037 Devonshire St. Northridge, CA 91325)

**에브리데이교회, 사랑의빛선교교회 공동주관**





그레이스미션대학교의 교직원과 졸업생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국제개혁대 · 신대원 제39회 학위수여식이 열렸다.

### 풍성한 열매 맺는 사역자 되라

#### 그레이스미션대학교 졸업예배 드려

그레이스미션대학교(GMU) 졸업예배 및 학위수여식이 지난 6월 4일(월) 오후 5시 개최됐다.

이 행사는 김현완 교무학장의 사회로 교수와 졸업생이 입장하는 것으로 시작됐다. 제임스 조 학생학장이 대표기도하고 이병구 박사 원장이 고린도후서 9장 8절을 봉독했다. 이어 한기홍 이사장(은혜한인교회 담임)이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사역자가 되십시오”라는 제 목적으로 설교했다.

김현완 교무학장이 졸업생들의 이력을 소개한 후, 최규남 총장이 학위를 수여했으며 우수 졸업자에 대한 시상으로 이어졌다.

학사 졸업생 안정환 씨가 총장상을, 선교학 석사 박창희 씨가 총회장상을 받았다. 이어 신승훈 총회장(주님의영광교회 담임)이 축사를 전하

고 최규남 총장이 권면했다.

박창희 씨가 졸업생들을 대표해 감사하고 최경하 씨가 졸업생들의 마음을 모아 학교에 선물을 전달했다. 또 재학 중 학교를 위해 헌신한 이들을 위해 최규남 총장이 공로패를 증정했다. 이 패는 최경하, 홍란희, 박창희, 염동권 씨가 받았다.

마지막으로 축도는 전 총장인 김광신 목사(은혜한인교회 원로)가 했고 교수와 졸업생이 퇴장하는 것으로 모든 행사가 끝났다.

그레이스미션대학교는 1995년 설립돼 현재까지 600명 이상의 동문을 배출했다. 졸업생의 40%가 해외 선교사로 파송됐을 정도로 선교에 주력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대한예수교장로회 국제총회 산하 신학교로 최근 6년 만에 ABHE, TRACS, ATS의 정회원 인가를 모두 획득하며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 국제개혁대 제39회 학위수여식 거행

#### 나성서부교회에서 개최, 23명 학위 받아

국제개혁대학교 신학대학원(International Reformed University & Seminary, IRUS, 총장 박헌성 박사) 제39회 학위수여식이 5월 19일 나성서부교회에서 거행되었다. 기독교 학사 2명, 기독교학 석사 1명, 목회학 석사 15명, 목회학 박사 3명, 명예박사 2명 등 23명이 학위를 받았다.

안소연 이사장의 사회로 열린 학위수여식에서는 부이사장 김요한 박사가 대표기도하고 이사 정종준 박사가 성경을 봉독했다. 설교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총회장 전계현 박사가 ‘너희는 지혜롭고 순결하라’란 제목으로 전했다. 교무처장 이광훈 박사의 학사 보고에 이어 학위수여식이 거행되었고 총장 박헌성 박사의 훈시, 세계예수교장로회 총회장 조의호 목사의 축시, 부총장 오세택 박사의 권면, 대한예수교장로회 회록서기 장재덕

목사의 격려사, 대한예수교장로회 총무 최우식 목사의 축사, 이사 김준경 박사의 광고, 나성서부교회 원로목사 김승곤 박사의 축도로 모든 행사를 마쳤다.

IRUS는 캘리포니아 주정부 교육국 BPPE와 연방정부 교육부 USDE 및 대학인준협회 CHEA 산하 기독교대학인준기관인 ABHE의 정회원 대학교이다. 또 한국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총회장 전계현 목사)와 세계예수교장로회(총회장 조의호 목사)의 인준신학교로 강도사 고시를 거쳐 목사안수를 받을 수 있다.

금년 여름학기(8월 13일-17일)에 목회학 박사 과정을 모집 중에 있으며, 가을학기 개강은 8월 20일이다. 입학에 관한 문의는 전화 213-381-0081, 이메일 office@irus.edu로 하면 되고 웹사이트는 www.irus.edu이다.

### 글로벌 비전 153 향해 힘찬 발걸음

#### 코헨대학교 · 신학대학원 제30회 학위수여식

히브리식 사고를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는 코헨대학교·신학대학원(Cohen University & Theological Seminary, 설립자 강신권 박사, 총장 로날드 밴더메이 박사, 이하 코헨대) 제30회 졸업식이 5월 25일(금) 오후 5시에 토렌스의 본교 채플룸에서 열렸다. 금번 졸업식에서는 미국, 캐나다, 멕시코, 브라질, 일본, 한국, 중국, 인도, 러시아 등 총 31개국 코헨 본교에서 학사 125명, 석사 50명, 박사 29명, 명예박사 11명 등 총 215명에게 학위가 수여됐다.

코헨대는 설립 30주년을 맞아 전 세계 153개국에 말씀 전수와 세계선교의 비전인 ‘153 월드미션’ 비전을 이루어갈 127개국 신학교 본교를 세우고, 미주 지역에는 최초의 익스텐션 캠퍼스를 세울 예정이다.

이날 학위수여식은 로날드 밴더메이 총장의 개회기도 후 게리 코헨 박사가 히21:1을 본문으로 ‘Our Lord’s Guidende for Troubled Times’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전했다. 이어 이한우 총장(브라질 코헨대 본교)의 인도로 진행된 학위수여식에서는 피드몬드대의 윌리엄 스티치 총장, 코헨대의 로날드 밴더메이 총장, 코헨대의 미셸 강 이사장, APU(American Premier University)의 알렉스 파시니아 총장, 코헨대의 임복만 동아시아 총장 등이 학위를 수여했다.

학위수여식 후에는 시상식이 거행돼 성적 우수상을 송정의 학우, 공로상을 이지연 박사, 최고 논문상을 서광석 박사가 받았다. ‘비전 153 월드미션’ 확장에 대한 특별 공로상을 정관창 박사, 김정희 박사, 이정화 박사가 각



전 세계 선교를 이루어가는 코헨대학교가 제30회 학위수여식을 본교에서 거행했다.

각 받았다. 이어 서광석 박사가 코헨대 설립 30주년을 기념해 축시를 낭독하고 Angel Team for Praise the Lord의 특별공연과 조봉석 목사의 트럼펫 공연, 중국과 브라질 코헨대 동문들의 공연이 이어졌다. 또 윌리엄 스티치 총장의 축사 후에 게리 코헨 박사의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오바마케어 승인 프로그램**  
**Christian Healthcare Ministries**  
**크리스천 헬스케어**  
 \* 연중 아무때나 가입이 가능.  
 \* 골드 프로그램은 본인부담금(\$500)을 지불하지 않음  
 ACCREDITED CHARITY  
 BBB.org

www.saseducation.weebly.com  
**실무 10년의 노하우**  
**SAS 인가컨설팅, Inc**  
 대표 Paul Kim, Ph. D  
 Tel : (213)531-7215, (909)993-3028  
 2975 Wilshire Blvd, Suite B01, Los Angeles, CA 90010

- 직업전문대학인가(ACCSC)
- 신학교 인가(TRACS, ATS)
- BPPE 신규 및 재승인
- 어학원/온라인 프로그램

summitus37@gmail.com

**축**  
**제47회 미국장로교 한인교회 전국총회 총회장 취임을 축하합니다**

미국장로교 한인교회  
**위험이 이대를 불러일으킨다**  
 For Such a Time as This

총회장 원영호 목사 (새장로교회)

PCUSA 미국장로교회 남가주 하와이 대회 KPC 회원 일동

nckpc 미국장로교 한인교회 전국총회





미주장신대 졸업생들과 교직원들이 함께 기념촬영했다.



미성대학교 졸업식에서 졸업생, 교수 및 총회 이사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 “끊임없이 배우는 신학도 되라”

#### 미주장신대 제37회 학위수여식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이상명 총장)가 제 37회 졸업감사예배 및 학위수여식을 6월 3일 (토) 가나안장로교회(이철 목사)에서 진행했다.

1부 감사예배는 학생처장 박종기 목사의 인도로 해외한인장로회 LA회회장 김동현 목사의 기도 후, 서노회장 김동원 목사가 마 6:33을 성경봉독 했다. 박동진 학우의 특송 후 전 총회장 황천영 목사가 “가장 중요한 것”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황 목사는 “육망과 사명을 혼동하지 말고, 절대가치인 그리스도의 의와 나라를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붙들라”고 권면했다. 이어 이철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친 후 2부 순서로 교무처장 구경모 박사의 사회로 학위수여식이 진행됐다. 구경모 박사의 학사보고에 이어 이상명 총장이 학위를 수여했다. 이어 박성규 직전 총회장이 이윤숙 (M.Div.) 씨에게 총회장상을, 유영기 이사장이 김쥬디(B.Th.) 씨에게 이사장상을, 이상명 총장이 이영근(M.Div.) 씨에게 총장상을, 민준기 동문회장이 유영민(M.Div.) 씨에게 동문회장상을 시상했다.

격려사를 전한 이상명 총장은 “오늘의 자리까지 졸업생을 위해 최선을 다해준 교수들과 기도와 물질로 후원해 주신 총회와 노회,

이사회와 모든 후원자들에게 감사드린다”면서 “미주장신이 미주 지역의 교회와 세계라는 무대에서 사역할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을 양성하는 선지학교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말했다. 또 졸업생들에게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하나님의 비전을 붙들고 끊임없는 배움의 신학도로 살아가라”고 말했다.

이어 졸업생 대표로 유명민 학우가 학교에 기념품을 전달하고 재학생 대표인 전우진 학생회장이 유명민 학우에게 기념품을 전달했다.

한편, 은퇴하는 박종기 박사에게 이상명 총장이 감사패를 전달하고 학생회에서 기념품을 전달하는 시간도 있었다. 퇴임사를 전한 박종기 박사는 “부족한 사람을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총장님과 교직원, 노회와 총회, 동문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미주장신대는 2012년 이상명 박사가 6대 총장으로 취임한 후, 2013년 원격교육 과정을 시작으로 2016년 ABHE에 이어 ATS 정회원 후보로 인준 받았다. 2017년은 ABHE로부터 한인신학교 최초로 Ph.D. in Contextual Studies 학위 인가를 받았다. 1977년 개교 이래 758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 “학위는 여러분의 겸손으로 완성된다”

#### 미성대학교 제16회 학위수여식

미성대학교의 제16회 학위수여식이 지난 6월 2일 오전 10시 30분 미성대학교 채플실에서 열렸다. 이번 학위수여식에서는 학사 3명, 목회학 석사 1명, 상담학 석사 15명, 경영학 석사 1명, 목회학 박사 8명, 상담학 박사 7명 등 35명이 학위를 받았다.

제1부 예배는 황의정 대학원장의 사회로 시작돼 류호주 재무이사가 기도하고 최경환 목사(미주성결교회 총회장)가 “잊지 말아야 할 것(신9:11-20)”이란 제목으로 설교했다. 제2부 학위수여식은 윤석길 교무처장의 사회로 시작돼 학위가 수여되고 총회장상, 이사장상, 총장상, 동문회장상, 논문우수상 등 각종상이 수여됐다.

끝으로 류종길 총장이 훈화하고 파송기도함으로 모든 행사가 마무리됐다. 류 총장은 “오늘은 개교 이래 최고 최대의 졸업식”이라며 감격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2013년 캘리포니아 주정부 허가과 I-20 발급, 2014년 ATS 준회원 가입, 2015년 ABHE 정회원 획득 후 경영학 학사와 석사, 목회학 박사, 상담학 박사 등 학과 증설, 연방정부 학자금 지원 프로그램 승인 등 학교의 발전상황을 보고했다.

류 총장은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은혜와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 덕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했다. 그는 학위를 받고 파송받는 졸업생들에게 ‘겸손’을 당부했다. 류 총장은 “여러분이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그 은혜를 아는 것이 겸손이며, 여러분의 학위는 겸손으로 완성된다”고 강조했다.

이날은 ATS의 시니어 디렉터인 레스터 루이즈 박사도 축사를 전했다. 그는 “이번 졸업식은 훌륭한 교육을 통해 다듬어지고 훈련된 졸업생을 배출함으로써 미성대의 사명을 전명하는 계기가 된다”면서 “졸업생들은 치유와 온전함을 갈망하는 세상에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축복을 가져오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미성대는 오는 8월 27일을 앞두고 신입생 및 편입생을 모집한다. 입학 원서 마감은 8월 20일이며 성적과 자격에 따라 다양한 장학금이 제공된다. 학사 과정에는 기독교학, 경영학, 석사 과정에는 목회학, 상담학, 선교학, 경영학, 박사 과정에는 목회학, 상담학이 있으며 ESL, TESOL 자격증 과정도 있다.

문의) 323-643-0301

웹사이트) www.aeu.edu

### 마데테스 개혁신학대 · 대학원 학위수여식

마데테스 개혁신학대학교·대학원이 지난 2일 낮 서울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2018년도 학위수여식’을 갖고 23명이 학위를 받았다. 김경수 목사의 사회로 열린 학위수여식에서는 유영호 목사가 성서를 낭독하고, 김영관 목사와 이인자 목사가 각각 기도와 성경봉독을 한 후 박노석 목사(총회장)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마16:21-28)란 제목으로 설교했다. 박노석 목사는 “오늘 학위를 받은 이들은 이제 세상을 향해 나아가 목

회 활동을 하려는 자들로, 그 기준이 예수가 되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예수를 따르며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하며 ▶목숨을 걸고 예수를 따르라고 당부했다.

또 행사 중에는 유기복 선교사가 특별찬양을 했으며, 이어 현연섭 목사(총장)가 학위 대상자들에게 학위를 수여했다. 한편 모든 행사는 김정문 목사의 축도로 마무리 됐다.

한편 학교 측은 신학대학교에 대해 “주님

의 뜻을 좀 더 바르게 행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 자들의 학업의 전당”이라 소개했다. 이어 “사이비 이단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의 절대성을 훼손하는 이 마지막 때에, 바른 신학을 탐구하고 습득함으로 바른 목회를 통해 주님의 참된 제자(마데테스)들이 다 되어야 할 것”이라 당부했다.



마데테스 개혁신학대 및 대학원의 학위수여식이 한국에서 열렸다.

· 이번에는 무슨 차로 할까? · 요즘 스페셜이 있는 차가 무얼까?  
· 자동차 구입할까? · 리스 할까? · 내가 용자가 될까?  
· 어떤 해를요? 10년의 경험을 기반으로 고객님의 고민 해결을 한 방에 날려 드리겠습니다.  
· 친화 주세요! 도와 드리겠습니다.

천천히 다 둘러보시고 오세요~

**당신의 마지막 카드**  
16년 경력의 자동차 판매 전문인, 철저 정

**현대 HYUNDAI**  
Puente Hills Hyundai

찰리 정 (FLEET MANAGER) | 213-276-8959 | email: usajyk@gmail.com

문/사/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J.C Superstar 뮤지컬 단원모집**

대상 : 초, 중, 고, 대

고문위원 : 코너스톤 교회 이종용 목사  
자문위원 : SBS 생활의 달인, 꾸러기 탐구생활 이상호PD

**아이비 유학** Torrance / Irvine / LA shelbykwon65@gmail.com  
T. (949)329-8222, (949)864-9162

**CARAVAN CANOPY Division of Faith**

**교회 이동 디스플레이 및 디자인 전문**

카라반캐노피는 대형프린팅 분야에서 18년의 전문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안 수정, 로고 제작, 한글 캘리그래피 디자인 등 다양한 서비스가 가능하며 고성능 프린트 작업으로 최고의 만족도를 약속드립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모든 디스플레이 제작, 맞춤형 서비스

- 현수막 | 천막
- 접이식 배너 | 디스플레이
- 프로모션 상품
- 디자인서비스

**VINYL BANNERS**  
2' X 5' with grommets : \$25 Plus tax if applicable  
4' X 5' with grommets : \$50 Plus tax if applicable

**MESH/POLY FABRIC BANNERS**  
2' X 5' with grommets : \$35 Plus tax if applicable  
4' X 5' with grommets : \$70 Plus tax if applicable

플래그, X 배너 거치대, 벽걸이 포스터, 롤업배너, 현수막, 미디어벽

14600 Alondra Blvd, La Mirada, CA 90638 | T. 877.922.6679 | 한국어. 714.367.3046 | www.caravancanopy.com



<선교 부흥을 회복하라 - 67>

### 존재하는 교회 vs 사역하는 교회 (2)

<지난 호에 이어> 필자는 설교단 상에서 하나님께 미국에 우리를 보내신 목적은 한국에서보다 윤택하고 잘 살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로 세계를 품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기 위함이라고 자주 선포한다. 이는 대부분 목회자들이 강단에서 설교하는 내용이라 생각한다. 정말이다. 성경의 말씀은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분명하게 알려준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기 위함이다. 빛으로 산다는 것은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이루어지는 삶이며, 소금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 안에서 살아갈 때에 비로소 이루어지는 삶이라. 빛과 소금을 선포하면서 도덕적, 윤리적 삶의 모범을 말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된다.



이상훈 목사  
주비전교회 담임

결말로 연합해 밤이 맞도록 사역을 다하여 기도로 씨름해야 한다. 필자의 교회는 선교단체와 동역하여 이슬람권 최전방 선교를 담당한다. 그리고 성도들을 훈련시켜 그곳 단기선교에 적극 참여시킨다. 2주 내지 3주간의 짧은 단기선교가 대부분 성도들의 삶의 질을 변화시킨다. 선교지에서 매순간 드리는 예배는 그때마다 간절함이 있다. 반드시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주님 없이는 한걸음도 갈 수 없음을 깨닫는다. 그 현장에는 영혼구원에 대한, 그리고 예배를 통해 새 힘을 얻기 위한 타는 목마름이 있다.

선교에 참여하고 돌아온 성도들의 간증을 들을 때 가장 많이 말하는 부분이 예배관과 마음이 짐이 달라졌다는 것이다. 간절함 없이 매주일 반복되는 냉랭한 형식적 예배에서 이제 진정 하나님을 바라며, 무엇을 기도하고, 어떻게 예배드려야 할지를 깨달았다는 간증이 많다.

교회는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을 향한 마음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심정으로 열방의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한 뜨거운 사랑과 열정을 가져야 한다. 지금 이슬람권을 하나님께서 열고 계시다. 그 현장은 두려워 할 곳이 아니다. 물론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겸허하게, 신중하게, 현지인들의 문화를 이해하기까지 그들에 대한 공부와 훈련을 잘 마치고 나가야 한다. 그 현장에는 단기선교팀을 다시 훈련하고 인도할 전문적 장기간 선교사 가정팀들이 안전과 방법 등의 모든 사항을 가르칠 준비를 갖추고 있다. <계속>

● 섬기고 나누는 월드쉐어 USA 강태광 목사

### 행복 선진국 덴마크의 기초가 된 기독교 정신

세계 1위 행복국가 덴마크는 행복 선진국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잘사는 나라입니다. 덴마크의 GDP는 미국과 거의 유사합니다만 미국에 비해 훨씬 더 행복합니다. 미국은 행복 순위가 20위권 정도입니다. 덴마크 행복의 비밀 중의 하나는 복지입니다. 덴마크는 무상 교육과 무상 의료 서비스를 자랑합니다. 태어나서 죽기까지 복지 혜택이 거의 완벽합니다. 국가가 국민 개개인의 위기를 관리해 주는 사회복지 제도를 운영합니다. 온 국민이 국가 복지시스템을 지지하고 동참합니다.



강태광 목사  
월드쉐어 USA

덴마크 국민들은 연대의식이 아주 강합니다. 그들의 건강한 연대의식이 잘 드러나는 현상이 노동조합입니다. 덴마크는 노동조합 천국입니다. 그들은 '돌만 모이면 노조'를 만듭니다. 덴마크 직장인 100명당 98명이 노조원입니다. 그런데 이 막강한 노조가 사리사욕이 아닌 기업과 국가의 이익을 도모합니다. 덴마크 기업이 노조 때문에 더 건실하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덴마크 국민들의 건강한 연대의식은 약자를 향한 사회적 배려에서도 나타납니다. 덴마크 사람들은 가난하고 연약한 이웃을 향한 책임감이 분명합니다. 덴마크 국민들에게는 자신들의 세금과 기부금으로 연약한 이웃들을 돌보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문화가 있습니다. 이런 사랑과 나눔 정신은 기독교의 '사랑'에서 출발된 것입니다. 기독교적인 사랑의 정신이 사람들과의 관계 형성 그리고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행동 양식에 아주 깊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기독교 정신이 덴마크 사회와 문화 전반에 걸쳐서 깊게 배어 있습니다.

80%가 기독교 신자인 덴마크는 국교가 기독교입니다. 덴마크는 그룬트비 목사의 '행복하려면 사랑하라'는 기독교적 교육철학이 지배하는 나라입니다. 그룬트비 목사(1783~1872)는 목사 집안에서 태어나 목사, 신학자, 시인, 역사가, 정치인으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덴마크 중흥의 기초를 놓은 건국의 아버지로 지금까지 온 국민의 절대적 존경을 받는 지도자입니다.

덴마크는 1864년 독일과의 전쟁에서 국토의 35%, 인구의 40% 정도를 잃었습니다. 온 국민이 좌절하고, 많은 사람들이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습니다. 국고는 바닥나고, 나라는 심각한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등장한 인물이 바로 그룬트비 목사였습니다. 그룬트비 목사는 생명력을 잃은 교회를 개혁하고 나라 살리기 위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자연 사랑 즉 삼애(三愛)정신을 강조하며 나라의 회복을

주도했습니다. 이 삼애가 덴마크 국민 구호가 되었습니다.

그룬트비 목사는 나라 회복의 기초가 되는 국민정신개조를 위해 목회자들을 먼저 설득하였습니다. 그룬트비 목사는 목회자들이 주민들에게 희망을 심어주는 전령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목회자들에게 삼애정신과 낙농기술을 가르쳤습니다. 당시 각 지역 교회는 주민 센터가 되고, 목회자들이 덴마크 국가 개혁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당연히 덴마크의 변화와 개혁에 기독교 정신이 묻어 있습니다.

교회와 목회자들이 국가개조에 기초가 되었던 덴마크는 철저한 기독교 정신 위에 재건됩니다. 사회 전반에 기독교 정신이 살아 있습니다. 덴마크는 나치 독일 치하의 유럽에서 유일하게 유대인을 내치지 않은 나라입니다. 덴마크가 이토록 위대한 사랑을 실천한 것도 철저한 기독교 정신 위에 서 있는 나라인 까닭입니다. 덴마크 노동조합 문화나 사회복지 제도에 담긴 멸사봉공 정신과 문화도 기독교적인 사랑의 발로입니다.

이 기독교 정신은 교회나 강단에 머무르는 것이 아닙니다. 삶에서 실천되는 살아있는 정신입니다. 기독교의 정신이 문화화 되고 생활화된 나라가 덴마크입니다. 행복 선진국 덴마크를 살피면서 행복한 사회와 교회를 향한 희망이 환층 구체화되었습니다. 진정한 기독교 정신이 구현될 때 행복한 사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덴마크 사회가 실증합니다.

### 기독교일보

편집고문 : 박희민, 정재효, 박기호, 방지각, 김중언, 고승희, 민중기,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 이인규 이 사장 : 임덕순 고문변호사 : 정찬용  
 지사 :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시카고, 애틀랜타, 시애틀

---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E-mail : chdailya@gmail.com  
 Pay to the Order of : Christianity Daily  
 주소 :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 기독교일보

편집고문 : 박희민, 정재효, 박기호, 방지각, 김중언, 고승희, 민중기,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 이인규 이 사장 : 임덕순 고문변호사 : 정찬용  
 지사 :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시카고, 애틀랜타, 시애틀

---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E-mail : chdailya@gmail.com  
 Pay to the Order of : Christianity Daily  
 주소 :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 이렇게 하면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 된다

김인중 · 김재문 원로목사 초청 세미나

에브리데이교회에서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라는 주제 아래 6월 11일(월)부터 13일(수)까지 목회자 세미나가 열린다. 에브리데이교회와 사랑의빛선교교회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이 세미나에서는 안산동산교회 김인중 원로목사와 사랑의빛선교회 김재문 원로목사가 강사로 나선다.

서울대와 총신대를 졸업한 김인중 목사는 한국 CCC 설립자인故 김준곤 목사의 집회 중 인생의 큰 변화를 체험했고 1979년 안산에 동산교회를 개척해 대형교회로 성장시켰다. 그러나 교회 규모보다 그는 건강한 목회, 미래지향적 목회로 더욱 유명했다. 그가 설립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인 동산고등학교는 기독교적 믿음으로 운영되며

수많은 문제아들을 신앙으로 변화시킨 체험이 있다. 게다가 대학 진학률까지 한국 전체에서 손꼽을 정도로 유명하다.

김재문 목사는 사랑의빛선교회회를 개척 후 수 년 만에 교인 1천 명대로 성장시켰으며 남가주 지역에서 가장 주목받는 건강한 교회로 일궈냈다. 그는 최근 예수목회원을 설립해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세미나를 열고 후배 목회자들을 1대1로 멘토링, 컨설팅하며 목회 노하우를 전수하고 있다. 그는 목회의 비결에 대해 “성령 목회, 예수 목회, 말씀 목회, 십자가 목회”라고 정리하며 “성령에 사로잡혀 예수님처럼 오직 말씀과 십자가로만 목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문 목사는 이번 세미나에 대해 “하나님께서 크게 쓰신



세미나를 소개하는 김재문 원로목사

김인중 목사의 열정, 그의 성령과 함께 한 믿음을 배울 수 있는 기회”라며 남가주 지역 목회자들의 참여를 권했다.  
문의) 818-832-6628

## 백동조 목사 초청 부흥성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행복목회를 꿈꾸며 전력을 다해 사역하시는 백동조 목사님께서 “회복”의 주제로 함께 하는 부흥성회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백동조 목사 프로필

- 목포 사랑의 교회 시무
- 총신대학교 설교학 박사(TH.D)
- 한국 개혁주의 설교학회 이사장
- 행복목회 아카데미 대표
- 행복목회 네트워크 대표
- 해외유학생수련회(KOSTA)강사
- CBS TV 강단(매주 토요일 오후 6시 30분)
- 저서 : 당신의 교회는 행복합니까?(두란노)
- 적용이 있는 효과적인 이야기식 설교(행복나눔)
- 바른믿음(행복나눔)
- 하나님의 마음(행복나눔)
- 확신의 삶(행복나눔)
- 회복의 삶(행복나눔)
- 행복한 삶(행복나눔)
- 축복의 삶(행복나눔)

- 일시**  
**6/8(금)** 7:30pm 회복의 자리 (왕하5:1-14)  
**6/9(토)** 7:30pm 행복하십니까? (마7:20-24)  
**6/10(주일)** 1부(8:00am), 2부(10:30am) 놀라운 회복의 복음 (삼상16:6-12)  
 3부(1:00pm)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쓰신다 (출2:1-15)  
 4부(4:00pm) 풍성한 회복을 위하여 (창22:16-18)

**주님의영광교회**(담임목사 신승훈)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213)749-4500



# 구원의 은혜보답의 지혜

누가복음 7:36-50



서울성은교회 목사 장재효

구원의 은혜는 택하신 사람에게 하나님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방법으로 거저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평생 살아 숨쉬는 날 동안 어떻게 보답하며 살 것인가 하는 지혜가 그 사람의 믿음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를 가능합니다. 구원의 은혜보답의 지혜는 우리 모두가 평생에 꼭 깨달음으로 지켜져야 할 영원하고 신령한 소망의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본문의 내용은 이상하게도 바리새인 한 사람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셨습니다. 모셨다고 하는 것은 상대를 대접하기 위함이라고 누구나 생각하겠지만 본문의 내용 전개로 볼 때 그렇지 않았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반대하고 대적했으며 훼방하고 죽이려고 기회를 엿보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한 것은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분을 통하여 죄를 용서받고 구원얻어 하늘나라 가기 위함이 아니라 그 당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큰 화제거리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셔 왔다는 것이 자랑거리가 될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인지 본인도 궁금한 생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손님 세 사람이 문 앞에서 있는 것을 보고 가서 엎드려 간청하기를 “내게 은혜를 주실 것이 라면 잠깐 가서 물을 떠올테니 손발을 씻고 집 옆에 나무 그늘에 앉아 쉬시면 떡을 쯤 만들어 오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 유대나라 사람들은 사막 지역을 맨발로 다니던 시절이었습니다. 어디 앉아 음식을 먹으려면 손을 필연적으로 씻어야 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은 손으로 음식을 먹기 때문입니다. 본문 44절은 이러한 이유로 하신 말씀입니다. 손발을 초대해 놓고는 손과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는 것은 예수님을 전혀 몰라봤다는 것이고 그저 한번 불러들인 것으로 밖에 생각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동료 바리새인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때 그 동네 죄인인 한 여자가 그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마 예수님께 관심이 집중되어 이 여인이 들어오는 것을 제지하지 못한 듯 합니다. 죄 많은 여인을 바리새인들이 결코 집에 들이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의 식사법은 두 다리를 쭉 펴고 한쪽 팔꿈치로 땅을 짚고 귀에다 한쪽 팔을 받치고 비스듬히 누워서 오른손으로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처럼 비스듬히 누워 계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발치에 그 여인이 서서 예수님의 발에 눈물이 떨어질 정도로 울었습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을 알아보게하는 신 지식(God Knowledge, 神知識)을 선물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을 초대한 바리새인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지만, 오히려 죄 많기로 소문난 이 여인은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본 것입니다. 율법을 가지고 행세하기 좋아했던 바리새인보다도 훨씬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아보게 하심을 받았다는 것은 그 여인을 하나님이 구원하실 대상으로 택하셨다는 증거가 되는 줄 깨달아야 합니다.

그 여인은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죄악된 생활을 한없이 뉘우치고 후회하며 괴로워하면서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도록 대속해 주실 분이 이 예수님 밖에 없다는 것을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 들어오기가 난감했겠지만 용기를 가지고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는 한없는 회개의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여인의 생명같은 정절을 상징하는 머리털로 수건삼아 자기 눈물로 먼지와 범벅이 된 예수님의 발을 닦아 드리면서 가지고 온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리고 그 발에 입 맞추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을 단편적으로 잘못 생각하면 마치 창녀가 사내를 유혹하는 것처럼 음란의 유혹과 같은 모습이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 여인의 모든 것을 아시고 계셨습니다. 그 여인이 하나님을 택하신 딸이라는 것과 자신이 십자가에서 대속하여야 할 사람,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애통해 하는 모습이 이 시간 예수님을 통하여 죄 용서받기 위한 가장 진지한 회개의 모습임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시각에서 문제가 제기됩니다. 그 집의 주인된 바리새인이 생각하기를 소문대로 이 예수가 용한 선지자라면 모든 것을 미리 알아보는 사람일텐데 자기 발치에서 향유를 붓고 그 발에 입 맞추기를 쉬지 않고 있는 그 여인이 얼마나 죄가 많은 더러운 여인인지 모르지 않을 것인데 가만히 두는 것을 보면 뭘 신통하게 알아보는 게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생각을 아시고 “빛 주는 사람에게 빛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오백 데나리온을 썼고 하나는 오십 데나리온을 썼는데 값은 같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탐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저를 더 사랑하겠느냐”고 물으십니다.

시몬이라는 이 바리새인은 더 많이 탐감 받은 자의 고마움이 더 클 것이라고 대답합니다. 이에 예수님은 그의 판단이 옳다 하시고 “내가 네 집에 들어오매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씻었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

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랑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하십니다.

향유는 머리에 붓는 것입니다. 머리에서 온몸으로 흘러내리면서 몸에 향유가 젖어 들면 여러 날 동안 향내가 향기롭게 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감히 예수님 머리에서 부을 자격이 없다는 겸손한 생각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정성과 죄 사람의 기대감에 죄 사람을 얻었다고 말씀 하십니다. 죄를 용서받았다는 것은 구원을 허락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께 한 행위적인 것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회개함으로 죄 사랑을 받은 것입니다. 본문에서 여인의 행동을 마치 드라마처럼 세세하게 표현한 것은 그 여인의 행동 하나하나가 예수님이 자기 죄를 대속하러 오신 그리스도로 알아보고 있다는 사실을 주지시키고 있다는 것을 두루 알게 하는 교훈을 위해서입니다.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초청하여 마주 앉아 있었어도 구원을 얻지 못했지만 이 집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이 여인은 예수님을 찾아오는 용기와 진실한 회개, 눈물, 옥합을 깨뜨린 것과 입맞춤의 모든 정성된 모습을 통해 예수님을 통하여 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아보는 지식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여인의 진지한 회개가 예수님께 인정받아 죄 사랑을 받았고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바리새인과 같이 겉치레와 교회 안에서 감투 쓰기 좋아하고 우쭐대며 행세하기 좋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구원 얻을 수 없습니다. 자기 생각에 이 정도면 잘 믿는 것이라는 타락한 인간의 잘못된 판단에

속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것은 구원 얻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며 헌금하고 기도한다고 구원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의 죄 많은 이 여인과 같이 자신의 죄를 먼저 깨달아 그 죄책감에 몸부림 치는 가운데 영감적인 깨달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통해 예수님만이 자신을 구원해 줄 유일한 그리스도로 알아보고 믿어지는 믿음을 얻게 될 때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50절에 “네 믿음이 너를 구원 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십니다. 거룩함을 찾던 바리새인은 예수님은 자기 집 안방까지 모셨으면서도 그분을 통한 구원의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의 교만함이 예수님을 알아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야고보서 4:6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셨습니다.

아직까지 구원 얻지 못한 사람들은 바리새인과 같은 교만함을 벗어버리고 구원 얻은 이 여인과 같은 겸손함과 죄 용서받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그리고 구원 얻었다 생각하는 분들도 더욱 성숙한 신앙을 위해 날마다 은혜보답의 지혜로 엮어가야 할 것입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신앙이 허물어질 수 있습니다. 마귀에게 빼앗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은혜보답의 지혜가 지속적일 때 구원의 은혜도 계속 보장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구원의 은혜주심을 보답의 지혜로 계속 예수님께 보여드리면서 더 큰 은혜와 기대로 더 요긴하게 붙들어 써주시도록 후회 없는 신앙을 갖고 영광 중에 결실하는 그리스도의 왕국의 주인공들이 됩시다.

## 성은교회 장재효 목사 TV / RADIO / 신문 / 인터넷 동영상 설교

한 국 선 교 설 교			
한국 방송 설교		한국 신문 설교	
CBS TV	목요일 오후 2시	경북 기독교 신문	3면 설교
CTS TV	금요일 오전 6시	기도원 연합신문	3면 설교
해 외 선 교 설 교			
미국 방송 설교		라디오 미국 방송 설교	
COX TV 워싱턴DC.	화요일 오후 6시	목요일 낮 12시	AM1540 라디오 코리아 주일 오전 8시 / 동영상 설교 제공
	토요일 오전 7시	주일 오후 10시30분	AM1590
CTS TV	수요일 서부 오후 4시30분 / 동부 오후 7시30분	시카고 기독교방송	월요일 오전 11시 20분
	토요일 서부 오후 6시 / 동부 오후 9시	AM1190	월요일 오후 5시 / 하와이 현지시간 오후 5시
미국 신문 설교		LA 미주 복음방송	AM1310 화요일 오후 7시30분
기독일보	5면 설교	오프라인 칼럼 설교	AM1310 화요일 오후 7시30분
	인터넷신문 설교	온라인 칼럼 설교	FM91.5(SCA) AM1650 LA 미주기독교방송
			수요일 오후 1시, 오전 2시

지구촌 어디서든 YOU TUBE에서 “장재효 목사” 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시청 가능합니다.

提供 국제성은복음선교회

# “TURN TO ME...”

## JOINT YOUTH RETREAT

### JULY 16(Mon) – 18(Wed)

#### @ FULL GOSPEL PRAYER MOUNTAIN

"Turn to me and be saved, all you ends of the earth for I am God, and there is no other."  
(Isa. 45:22)

## 제3회 청소년 연합수련회

- 기간 2018년 7월 16일(월) - 18일(수)
- 장소 나성순복음교회 국제 금식 기도원
- 대상 한인 중등부, 고등부 학생 (6-12학년)
- 모집 6월 24일(주일)까지 (선착순 120명)
- 신청 www.lafgc.com에서 신청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나성순복음교회 국제 금식기도원 Tel. 951-928-4415 lafgcd@gmail.com



Scan me



하루 3분 거꾸리 운동으로 허리통증과 혈액순환을 한번에!  
편리하고 안전하게

# 허리통증 해결

# Z-UP 전동 거꾸리

- 손가락 하나만으로 작동하는 전자동 전동식
- 한국 인기 운동기구 - 노약자분들의 필수품
- 척추, 혈액순환, 근육이완, 청소년 성장촉진에 좋습니다!

## 전동 거꾸리로 평생 허리통증에서 해방!

1. 활발한 운동으로 디스크가 눌리는 현상이 발생할 때, 반복적인 거꾸리 운동으로 척추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2. **통증을 유발하던 디스크가 제자리로** 돌아가도록 해줄 수 있습니다. 거꾸로 매달려 간격이 넓어진 척추공간에 통증이 줄고 회복력을 자연히 높혀줍니다.
  3. 거꾸로 매달리는 것은 요가에서 물구나무 서기와 똑같은 운동입니다. 운동하는 습관은 나를 지킵니다. 장수로 가는 길목입니다. 1일 1번 물구나무 서기하면 놀라운 효과가 나타납니다. **머리를 심장보다 낮은 위치로 이동, 정맥 팽창을 방지**해줍니다.
- 특히,  
1. 평소 허리에 손을 짚고 일어나거나 걸으시거나 2. 목직한 허리 느낌이 있거나 허리가 빠근하신 분  
3. 산악훈련, 등산, 심한 육체노동 후, 전신 혈액순환, 전신 근육 피로 완화에 탁월한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 누구든지 사용 가능한 전동 거꾸리 효능 (계속 반복 운동을 했을 경우)

- |  |  |
|--|--|
| 1. 머리의 혈행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 6. 거꾸리 운동 후, 머리가 개운해지는 것을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
| 2. 전신이 퍼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 7. 무릎 관절, 발목 관절에도 충분한 운동효과를 유발합니다.         |
| 3. 척추의 곡만이 정렬될 수 있습니다.                                 | 8. 성장기 어린이 청소년의 발육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성장판 자극) |
| 4. 추간판 디스크의 간격이 이완, 확장되고, 신경눌림이 없어져, 허리가 편안한 느낌을 받습니다. |  |
| 5. 전신 근육 운동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복근 및 어깨 회전 근계골 등)           |  |

## 손쉽게 하는 전동 거꾸리로 물구나무서기, 어떤 효과가 있을까?

### ★ 척추기능향상

평소 직립 보행으로 하체에 혈액이 모이게 되는데, 물구나무를 서다보면 혈액이 머리에도 공급되기 때문에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고 이를 척추가 지탱해 주기 때문에, 척추기능이 향상되고, 특히, 성장기 어린이들에게는 키가 크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 ★비염, 코막힘 해소

혈액순환이 활발해져서 코막힘이나 비염 치료에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2717 Olympic Blvd., L.A., CA 90010 (올림픽 한남체인 건너편, 천종산삼 옆)  
Tel. 213-382-7100, 213-700-8382





기념 감사예배를 마친 후, 모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했다.

### LA씨티교회 4주년 맞이해

LA 씨티교회(씨니 김 목사)가 6월 3일 창립 4주년을 맞이해 감사예배를 드렸다. 이 예배에서는 김재연 목사(칼빈대학교 전 총장)가 “기도자와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그는 “우리는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 강조했다. 김 목사는 “씨니 김 목사는 늘 울면서 기도하는

올보 목사다. 부흥하는 교회에는 기도하는 목사와 성도가 있다”고 전했다.

이후 특별 연주로 서찬영 씨(휴스턴 심포니 오케스트라 단원)와 데이빗 장 씨(줄리어드 음대 재학)가 각각 첼로와 바이올린으로 찬양을 연주했다.

끝으로 교회 학생들과 선교사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수여하는 뜻깊은 시간도 있었다. 헬비 권 기자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박상현 선교사

### 태권도로 무슬림들에게 복음 전파

태권도로 복음을 전하는 박상현 선교사(탄자니아)가 지난 5월 27일 코너스톤 교회를 방문해 말씀을 전했다. 그는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와 암 말기 어머니, 치매에 걸린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살면서도 그런 어려움을 축복으로 받아들이고 선교사가 되기로 다짐했다.

다 30대에 탄자니아로 건너가 사역하고 있다. 이곳에서 그는 무슬림들에게 태권도를 가르치며 복음을 전해, 많은 제자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국가 대표 선수가 되는 등 열매를 얻고 있다.

그는 예배에서 자신의 어린 시절 간증과 현재의 사역을 보고해 성도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

그리고 할렐루야 태권도단에 입단해 전 세계를 다니며 태권도로 복음을 전하

헬비 권 기자



남가주사랑의교회 훈련 졸업예배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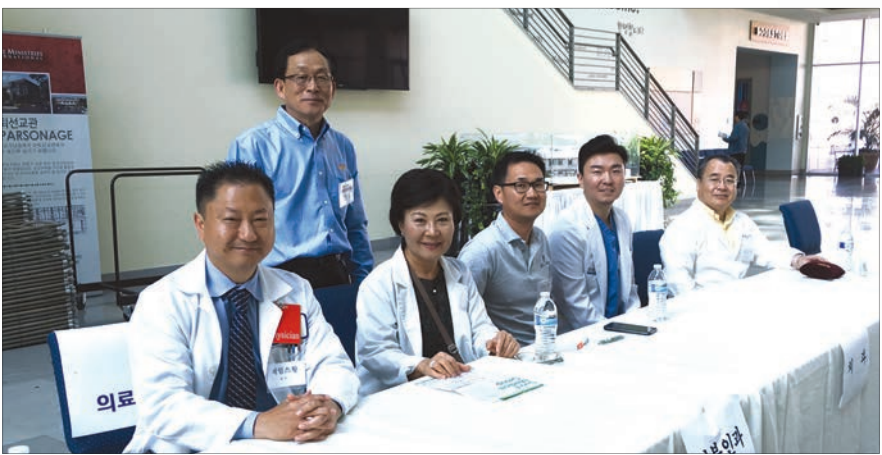
### 남가주사랑의교회 훈련 졸업예배

남가주사랑의교회(노창수 목사)가 6월 2일(토) 새벽 6시 15분 2018년 훈련 졸업예배가 있었다. 사역훈련 25기 총 56명, 제자훈련 28기 총 108명, Holy Wave DT 총 31명, 새일꾼반 59기 총 54명, 초등부 DT 총 21명, 한어중등부 KYDT & LT 총 23명, E-Jr. High KYDT 총 27명, 한어고등부 총 18명, 영어고등부 총 28명 등 총 366명의 훈련 졸업생이 새롭게 배출되었다.

노창수 목사는 요한복음 13장 말씀으로 “제자의 마크”라는 설교를 전했다. 그는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 참된 제자인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는 교회에 대해 좋은 말을 하며, 서로 섬기고 교회에 충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러 학생들이 간증하는 시간이 있었다.

이런 새벽임에도 성도들은 졸업자들을 축하하기 위해 온 성정을 가득 채웠다.

헬비 권 기자



은혜한인교회 의료선교국이 커뮤니티 건강검진 축제를 개최했다.

### 은혜한인교회에서 건강검진 축제

은혜한인교회(한기홍 목사)가 의료선교국 주관으로 은혜 커뮤니티 건강검진 축제(Grace Community Health Fair)를 지난 6월 2일(토)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개최했다. 이 행사는 교인뿐 아니라 지역사회 모든 거주자들을 대상으로 했

으며 해당 분야 전문가들이 검진을 맡았다. 이 검진에서는 일반종합 혈액 검사, 암수치 검사(종양표지자 검사), 흉통 검사, 초음파 검사, 폐기능 검사, 골밀도 검사, 간염 검사 등이 진행됐다.

헬비 권 기자



#### LA 지역

1부예배 오전 8:00 EM예배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20(월-금)  
젊은이 예배 오후 2:22 오전 6:20(토)  
주일-비질중학교 / 토요일-17와 비몬트 크니  
주중새벽- 520 S. La Fayette Park Pl, #450, Los Angeles, CA 90057

**김기섭** 담임목사  
www.LASarang.com

**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 깨우고 이단2세대를 양육하며, 이민가정을 치유하며, 선교영광을 순종하는 교회

520 S. La Fayette Park Pl, #450, Los Angeles, CA 90057  
주중연락처 T. (213)386-2233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장태원 담임목사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성경공부 오후 1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토)

**LA세계선교교회**  
선교를 통해 행복함, 사랑의 공동체

3407 W. 6t. #412 (6가와 카탈리나)  
T. (213) 909-6473 / www.missionla.org

주일에배 오전 10:50  
평신도 리더십훈련 매주 수 오후 7:00  
금요 말씀과 삶 공부 오후 7:30  
토요일침례 오전 8:00

**씨니김** 담임목사

**LA씨티교회**

4322 Wilshire Blvd. #301, LA, CA 90010  
T. (323) 833-9090

1부예배 오전 9:00 어린아이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Youth에배 오전 11:00 토요일연합새벽 오전 6:20

**한천영** 담임목사

**갈릴리선교교회**  
가족같은 교회, 가족 이상의 가치

2212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35-6412 / gmcchurhc.com

1부예배 오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2부예배 오전 10:30 오전 6:00(토)  
3부예배 오후 12:45 유초등부 오후 12:30  
금요기도회 오후 7:00 중고등부 오후 12:45

**강진웅** 담임목사

**갈보리민음교회**  
피난처 되시는 예수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제자들의 공동체

3300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10  
T. (213) 365-8880 / F. (213) 365-8802

주일 오후 2:00 엘리야 김 담임목사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월-토) 오전 6:00  
매일 성경통독 (월-토) 오전 7:00

**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나아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

264 S. Rampart Blvd. #276, LA, CA 90057  
T. (213) 272-6031 (37와 Rampart Blvd 교차로 북동쪽에 위치)

1부예배 오전 7:40 EM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9:3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3부예배 오전 11:45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진유철** 담임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새운 뜻을 이루아가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예배 저녁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유초등부 오전 11:00 6:00(토)  
중고등부 EM 오전 11:00

**김문수** 담임목사

**나성제일교회**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믿음의 공동체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T. (213) 388-7101

1부예배 오전 7:30 성인 EM예배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11:30 한어청년예배 오후 2:00  
3부예배 오후 1:00 전야예배 오후 3: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화-토 오전 6시

**박현성** 담임목사

**나성열린문교회**  
하나님나라의 비전을 실현하는 교회

3281 W. 6th St., LA, CA 90020  
T. (213) 383-2600, (213) 383-2602 / laopendoor.org

대예배 1부 오전 8:00 새가족 성경공부 오후 1:00  
대예배 2부 오전 11:00 중보기도회(목) 오후 1:00  
유년주일학교 오전 11:00 금요찬양 오후 7:00  
중고등부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토)

**정병도** 담임목사

**새일교회**  
LA Sehil Presbyterian Church

760 S. Westmoreland Ave, Los Angeles, CA 90005  
Tel. (213) 384-8690, (213) 320-7240 Email: laehc2011@gmail.com  
(87와 Westmoreland 교차로 First Baptist Church 옆에 위치함)

주일에배 오전 10:45 금요일예배 오후 8시  
주일오후예배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5:45(월-금)  
매일 밤 기도회 오후 9시

**박은중** 담임목사

**에일한인교회**  
치유하는 교회, 회복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1611 Beverly Bl., Los Angeles, CA 90026  
T. (213) 975-9191 www.wpcjesus.com

주일 1부예배 (분반) 오전 8:30 주일학교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분반) 오전 11:00 중보기도회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분반) 저녁 8:3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 6:30  
리소스예배(월-토) (소매일) 오전 11:00

**정장수** 담임목사

**올림픽장로교회**  
세상을 구원하고 행복을 주는 교회같은 말, 믿음, 꿈, 열매

3250 Wilshire Bl. #160, Los Angeles, CA 90010  
T. (213) 387-1700 C. (213) 500-4737 / olympic-church.org

1부예배 오전 9:00 유년부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Youth 주일학교 오전 11:00  
수요기도회 오후 8:00 청년대학부 오전 11: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박효우** 담임목사

**풍성한 교회**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회복하며 선교하는 교회

2911 Beverly Blvd., LA, CA 90057  
T. (213) 381-9490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0: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신승훈** 담임목사

**주님의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섬기고 사랑하는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1부예배 오전 9:00 금요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30(토)  
중고등부, 유초등부 오전 11:00

**이명수** 담임목사

**청운교회**  
4대 사역 : 유아원 사역, 후드 사역, 장학 사역, 십자가 사역

4465 Melrose Ave., Los Angeles, CA 90029  
T. (323) 667-9920

1부예배 오전 8:0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30 EM 2부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교육부 오전 11:30 새벽예배(매일) 오전 5:30

**민종기** 담임목사

**충현선교교회**  
불러세(Calling), 고치고(Healing), 기르며(Maturing), 맞선다(Confronting)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 (818) 549-9191 / F. (818) 549-9199 / choonghyun.org

주일1부예배 오전 8:00 E/M(대) 오후 1: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8:00  
한글학교주일 오전 10: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유초등부 오전 11:00 오전 6:30(토)  
중고등부 오전 11:00

**곽부환** 담임목사

**한마음제자교회**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 (213) 321-4433

주일예배 오전 11:00 이순환 담임목사  
목요침례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토)

**한샘교회**  
The Church By the Stream / 은혜의 샘, 생수의 강

1911 Wilshire Bl., LA, CA 90057  
T. (213) 505-3838 / yes9389@hotmail.com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수요일예배 오후 7:30

**장지원** 담임목사

**한우리장로교회**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치유와 회복이 있으며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

1932 10th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02-6709

문/서/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문/서/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문/서/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 LA 동부, 팜스프링스 지역, 라스베가스, 사우스베이, 토렌스

1부예배 오전 8:00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성경집회 오후 8:00  
3부영아예배 오후 1:00 금요성경공부 오후 8:0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이희철** 담임목사

**갯스일연합교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교회

904 E. D St., Ontario, CA 91764  
T. (909) 268-4279 / gwa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유초등부 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10:00 유치부 예배 오전 11:00

**신용환** 담임목사

**나성한미교회**  
복음의 본질위에서 성령이 감동하는 교회

2727 N. Dufferin Ave., El Monte, CA 91732  
T. (626) 444-0058



주일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토요일) 오전 6:00  
주일학교 주일오전 10:30

**김성원** 담임목사

**남가주새소망교회**  
예배 성령 신코로 세움 받아 함께 달려가는 예수그리스도 공동체

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T. (562)674-3016, cell. (562)417-1800  
www.newhopechurchla.com

1부예배 오전 8:00 EM예배 오후 1:30  
2부예배 오전 9:30 한어청년부 오후 2:15  
3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매일) 오전 6:00

**김준식** 담임목사

**남가주살롬교회**  
Shalom Church of Southern California

20050 S. Vermont Ave., Torrance, CA 90502  
T. (310)787-1004 shalomch.org

1부 예배 오전 8시 2부 예배 오전 10시 45분  
주요기도주일 오전 9:15-10:00(주일)  
수요성경공부 오후 8시  
금요찬양예배 오후 8시  
새벽기도회 오전 5시 30분(월-금), 6시 30분(토)

**장주영** 담임목사

**뉴스교회**  
새 시대를 책임지는 건강한 교회

1550 Greenbriar Ave., Corona, CA 92880  
T. (951)272-9126 / www.newsongcorona.com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수요기도회 오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조응철** 담임목사

**라스베가스갈보리장로교회**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 (702) 579-7576

1부예배 오전 8:00 Youth & 어린이예배 오전 11:00  
2부영어예배 오전 9:30 수요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화-토) 오전 6:00  
토요일금회교 오전 10:00-오후 1:00

**김성수** 담임목사

**뮤리에타 한인장로교회**  
건강한 교회 성숙한 신앙

24736 Washington Avenue, Murrieta, CA 92562  
T. (951)696-1034 / www.murrieta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00 4부예배 오후 1: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화-금) 오전 5:30, (토)오전 6:30

**고태형** 담임목사

**선한목자교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를 꿈꾸는 공동체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 (909)591-6500 sunhanchurch.org

1부예배 오전 7:45 중교등부 예배 오전 11:45  
2부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3부예배 오전 11:45 오전 6:00 (토)

**고승희** 담임목사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1부예배 오전 7:3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15 EM 2부예배 오전 11:45  
3부예배 오전 11:45 수요말씀강해 오후 7:30(토)  
4부 청년예배 오후 1:45 새벽예배 오전 5:30(토) 오전 6:00

**박신철** 담임목사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F. (909) 622-1480 / inland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기도회 오후 9:00  
장대교회 사랑의 나눔(매주 토) 오전 10:00-11: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이훈준** 담임목사

**창대장로교회**  
하나님께 영광!

3630 N. "E" ST., San Bernardino, CA 92405  
T. (951) 966-9191

주일예배 오전 9시 (지성전) 금요일예배 오후 7:30  
오전 11시 (본성전) 매일(월-금) 오전 6:00  
토요일새벽예배 오전 6:00

본성전 : 75580 E. Ramon Rd., Thousand Palms, CA 92276  
지성전 : 66700 E. 5th St., Desert Hot Springs, CA 92240

**최승목** 담임목사

**팜스프링스한인감리교회**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는 교회"

T. (760) 636-2675 / pspkmc.com

1부예배 오전 8:00 주일아침 성경공부 10:40  
2부예배 오전 11:30 금요기도회 오후 7:00  
3부 EWS 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유정고등부 예배 오전 8:40

**이호민** 담임목사

**가디나선교회**

1044 W. 164th St., Gardena, CA 90247  
Tel. 310)532-0191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 EM Bible Study 오후 7:30  
1부예배(EM) 오전 9:3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2부예배(EM) 오후 11:00

**정상용** 담임목사

**나성금란교회**  
기본으로 돌아가는 교회 (계 2:5)

3153 W.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 973-5106 / F. (310) 973-7429

1부예배 오전 8:00 EM 1부 9:30/2부 11:00  
2부예배 오전 9:30 중교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0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4부(젊은이예배) 오후 1:3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권영국** 담임목사

**대흥장로교회**  
파송가라,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출3:9~10)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1부예배 오전 9:00 새벽기도 오전 5:15 (화-금)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유/초등부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30 주일학교 중/고등부 오전 10: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성가대연습 오전 10:20

**서보현** 담임목사

**둘로스교회**  
영혼 구원하여 제자삼는 교회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951-3153 / doulos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청년부예배EM 오후 1: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 (화-토)

**강신권** 담임목사

**세계성경장로교회**  
말씀과 함께 세상 속으로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424) 257-8169 / F. (424)257-8170

1부예배 오전 8:00 금요 예배 금요일 저녁 7:30  
2부예배 오전 10:45 새벽 예배 매일 오전 6:00  
EM성인예배 오후 1:00

**김경환** 담임목사

**은혜로교회**  
새일을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라

431 Madrid Ave., Torrance, CA 90501  
Tel. (310)787-7766 / www.gwctorrance.com

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5:30  
3부예배(청년부) 오후 1:30 금요성령대안회 금 오후 7:20  
EM예배 오전 11:00

**박성규** 담임목사

**주님세운교회**  
Vision 7300으로 지역사회와 세계복음화에 힘쓰는 교회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T. (310) 325-4020 / F. (310) 325-4025

주일예배 오전 11:00  
성경공부 훈련 오후 2:00  
금요 중보기도회 오후 7:30

**이상훈** 담임목사

**주비전교회**  
하나님 마음으로 열방을 열자

1626 W. Gardena Blvd. #D, Gardena, CA90247  
T. (714) 296-6783 www.sbhivision.org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11:00  
3부 열린예배 오후 1:30  
아름답도록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활개 날으라 (롬 10:15)

**이호우** 담임목사

**좋은소식교회**  
Good News Church

15435 S. Western Ave. #200, Gardena, CA 90249  
T. (562) 453-5644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 (화-토)  
3부예배 오후 2:00

**이종용** 담임목사

**코너스톤교회**  
이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 F. (310) 530-8400 / cornerstonetv.com

주일1부 오전 8:00 수요예배 오후 7:30  
주일2부 오전 9:30 새벽기도 월-토 오전 6:00  
주일3부 오전 11:00 EM예배 English Ministry Sunday Service 11:00 am

**고창현** 담임목사

**토렌스제일장로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1880-1900 Crenshaw Blvd, Torrance, CA 90501  
T. (310) 618-2222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 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월-토 오전 5:30

**김우준** 담임목사

**토렌스 조은교회**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 (310)370-5500 / www.torrancegcc.org

주일1부 오전 8:00 2부 오전 12:45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월-금 오전 5:30

**윤 목** 담임목사

**한인소망교회**  
복음주의 신학에 기초한 말씀이 선포되는교회

28340 Highridge Rd., Rolling Hills Estate, 90274  
T. (310)715-9902

주일 1부 오전 8:00 중교등부 오전 10:30  
2부 오전 10:30 한어청년 오후 12:30  
EM예배 오후 12:30 수요예배 오후 7:30  
유년부 오전 10:3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이정현** 담임목사

**만남의교회**  
여호와와 열심이 이 일을 이루리라

18101 Lassen St. Northridge, CA 91325  
T. (818)882-9191, F. (818)882-9777 www.churchnamm.com

주일 1부 오전 8:00 EM예배 오후 1:30  
주일 2부 오전 9:30 금요성경집회 오후 7:45  
주일 3부 오전 11:3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젊은이예배 오후 2:00

**윤대혁** 담임목사

**사랑의빛선교회**  
말씀위에 굳게 서리라

2801 E Colorado Bl., Pasadena, CA 91107  
T. (626)744-9191

주일 대예배 오전 11:20  
금요일예배 오전 10: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6:00(토)

**곽덕근** 담임목사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이번 우크라이나 아버지학교 수료자와 봉사자들

## 가정사역으로 우크라이나에 복음을 미주 아버지학교, 현지 농촌 중심 가정사역 본격화

두란노 아버지학교 미주본부가 지난 5월 29일부터 31일까지 우크라이나 제3의 도시인 드니프로에서 현지 목회자 13명을 대상으로 아버지학교를 개설했다.

아버지학교는 지난해 중순 수도 키예프에서 아버지학교 제1기를 개설했으며 이후 아버지학교를 우크라이나 전역으로 확산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바 있다. 이번 드니프로 아버지학교는 키예프에서 아버지학교를 수료한 드미트리 목사가 우크라이나어로 직접 진행해 그 의미가 더욱 컸다. 그리고 미국, 러시아, 영국에서 온 여러 봉사자들이 섬겼다.

이번에는 드니프로에서 약 4시간에서 7시간 정도 떨어진 농촌 지역 목회자들이

참석했다. 우크라이나는 2016년 기준으로 개신교 전파율이 10% 미만이며 농업 중심국이다. 따라서 아버지학교는 현지 농촌 목회자들이 중심이 된 가정 사역을 통해 복음을 전할 전략을 세우고 있다.

미주본부 사무국장 이명철 목사는 "아버지학교는 가장인 아버지를 세우는 운동으로 농촌의 가정 문화와 공감하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하면서 "우크라이나는 미국과 정치, 경제적 우호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복음주의적 교두보를 확보한다면 중앙아시아와 중동 지역에서 서쪽과 북쪽으로 이동하는 무슬림을 막을 수 있는 가장 적합한 곳이다"라고 덧붙였다.



서울신대 남가주 총동문회가 열렸다.

## 서울신대 남가주 총동문회 개최

회장에 김기동 목사, 부회장에 조종곤·김희창 목사

서울신대학교 남가주총동문회가 지난 3일 오후 3시 LA의 용수산 식당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회장에 김기동 목사(총만교회), 부회장에 조종곤 목사(사우스베 이선교회), 김희창 목사(말씀새로움교회), 총무에 안신기 목사(한사랑교회)를 선출했다.

이날 총회에 앞서 드린 예배에서는 조종곤 목사가 사회를 맡았으며 김기동 목사가 기도하고, 송중복 목사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요15:7-8)"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이어 총동문회 고문 이기훈 목사가 격려사, 김희창 목사가 광고했다. 한 회기 동안 회장으로 수고한 송중

복 목사에게 서울신대 노세영 총장이 감사패를 전달하는 시간도 있었다. 총동문회는 지난 미주성경교회 총회를 맞이해 서울신대 총장배 골프 토너먼트를 열고 학교발전기금을 모아 학교 측에 전달했다. 이 감사패는 노 총장을 대신해 김희창 목사가 전달했다. 노 총장은 총동문회 모든 회원들에게 감사의 뜻으로 기념 볼펜도 보내왔다.

예배는 모든 회원들이 교가를 함께 부르고 허경삼 목사(오렌지중앙성경교회 원로)가 축도함으로 끝났다. 2부 총회에서는 새 임원을 선출했으며 3부 식사와 교제 시간으로 마무리됐다.



이 후원 행사에 참석한 짐 맥도웰 셰리프와 한인들

## 짐 맥도웰 셰리프 위한 모금 행사

지난 11일(금) 오후 6시 강일한 회장님께서 100여 명의 후원자들이 모여 LA 카운티 셰리프 집 맥도웰을 위한 한인 커뮤니티 기금 모금 행사가 열렸다. 짐 맥도웰 셰리프는 과거 LA 한인타운 올림픽경기장을 세우는 데 당시 LA경찰국 수석부국장으로 노력했으며 롬비지 경찰국장에 이어 지난 4년간 LA카운티 셰리프로 한

인 커뮤니티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는 이번 후원 행사를 통해 다시 한번 한인 커뮤니티에 감사를 표하고 한인 자문위원들과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커뮤니티 이슈를 논의하며 협력하기로 했다. 이 행사의 대회장은 박효우 목사, 준비위원은 이병희 목사, 이창엽 회장, 강일한 회장, 에드워드 구 씨 등이었다.

## 가슴으로 걷는 목회자의 길 세미나

미주복음방송이 전 이사장이며 감사한 인교회 원로인 김영길 목사를 초청해 '가슴으로 걷는 목회자의 길' 세미나를 오는 18일(월), 25일(월) 오전 9시 30분부터 12시까지 두 차례 걸쳐 연다. 세미나 주제는 각각 '가슴으로 하는 목회- 요셉에게서 배운다', '가슴으로 하는 설교- 모세에게서 배운다'이며 장소는 오렌지카운티 미주복음방송 공개홀이다.

하고 지난 5월 은퇴한 그는 "가슴으로 읽는 성경" 시리즈 집필 작업과 함께 목회 경험을 후배 목회자들과 나누는 사역을 하고 싶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세미나는 무료이며 선착순 50명만 사전 등록을 받는다. 세미나에서는 점심이 준비되며 김영길 목사의 신간, 가슴으로 읽는 성경 시리즈 첫번째 책 "은혜와 회복"을 선물로 증정한다. 문의) 714-484-1190





미드웨스트대학교 학위수여식 기념촬영

# 미드웨스트 개교 32주년 기념 행사 열려

## 세인트루이스 본교 세계선교기념관에서

올해로 개교 32주년을 맞이한 미드웨스트대학교(설립자 및 총장 제임스 송 박사)는 지난 5월 21일부터 24일까지 세인트루이스 본교에 있는 정진경 목사 세계선교기념관에서 다양한 행사를 진행했다.

5월 21일부터 23일까지는 식전 행사로 집중세미나(특강)가 열렸으며, 24일 오전 9시 30분부터는 글로벌 리더십 포럼, 오후 3시에는 학위수여식이 거행되었다.

글로벌 리더십 포럼에서는 SIM USA의 브루스 존슨 총재와 한국 한울고등학교 교장 박우승 박사가 강사로 섭졌다.

학위수여식은 교무처장 이희철 교수의 사회로 시작돼 총동장회장 박동호 박사가 기도했다. 미주리 주 하원의원이기도 한 린넬 슈메이커 이사장이 메시지를 전하고 총장 제임스 송 박사가 격려사를 전

했다. 그리고 닉 구치온 웬즈빌 시장의 축사, 스테픈 콕스 박사의 축도로 행사를 마쳤다.

이번 졸업식에서는 학사, 석사, 박사 등 총 41명이 졸업했으며 브루스 존슨 총재와 에스더 최 교장이 미드웨스트대학교의 명예 박사 학위를 받았다. 존슨 총재는 세계 선교를 위해 헌신한 점, 최 교장은 중국 북경에서 아메리칸 인터네셔널 스쿨을 운영하며 교육적, 사회적으로 이룬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에 학위를 받게 됐다.

또 이번 일련의 행사들 가운데에는 SIM USA와 미드웨스트대학교가 MOU를 맺고 협력하기로 다짐하는 시간도 있었다.

학교 전화) 636-327-4645 이메일) usa@midwest.edu 웹사이트) www.midwest.edu



졸업식 및 학위수여식을 마치고 기념촬영했다.

#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 캘리포니아 개혁신학대학교 졸업식 거행

북가주에 위치한 캘리포니아 개혁신학대학교가 지난 6월 2일(토) 학위수여식을 갖고, 성대한 졸업식을 거행했다. 특히 이 자리에는 100여 명의 가족과 내외빈이 참석해 졸업생들을 축하하고 격려했다.

신주범 총장은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면서, 졸업생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갖고, 하나님의 잃어버린 백성을 찾아 구원하는, 영혼 구원 사역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미주 한인예수교장교회 북가주 노회장인 이찬우 목사도 격려사를 통해 졸업생들에게 용기를 북돋아주며 격려했다.

졸업생으로는 2명의 신학사(김미영, 정

보경)와 1명의 기독교 교육학 석사(성희준), 1명의 선교학 석사(오인혜), 1명의 신학 석사(전수나) 등 총 5명이 배출됐다.

바른 신학, 바른 인격, 바른 헌신을 학훈으로 삼고 있는 캘리포니아 개혁신학대학교는 2018년 가을학기 학생도 모집 중에 있으며 학사 및 석사 과정을 비롯하여 지난해부터는 목회학 박사 과정과 기독교 상담학 박사 과정도 개설했다.

가을학기 개강은 8월 27일(월)이며 입학 원서 접수 마감일은 8월 24일(금)이다. 입학에 관한 문의는 전화 408-540-4561, 510-912-9191로 하면 된다.

데이빗 김 기자



한인기독교상담소의 김화자 소장이 한 한인교회에서 정신건강에 관한 홍보를 하고 있다.

# 한인 커뮤니티 찾아가는 세미나

## 한인기독교상담소 5월 한 달간 다양한 활동

월드미션대학교 한인기독교상담소가 지난 5월 한 달간 한인 커뮤니티를 찾아가 정신건강에 관한 다양한 세미나와 홍보활동을 펼쳤다.

이 상담소는 캘리포니아 주 정부로부터 이 활동을 위한 그랜트를 받았으며 이

기금으로 교회와 어린이집, 노인센터 등을 찾아가 스트레스, 분노조절, 우울, 대인관계, 가정폭력, 약물, 도박, 중독에 대한 정보와 상담을 진행했다.

문의) 213-738-6930 counseling119@gmail.com

<p>1부 예배 오전 8:30 2부 예배 오전 11:00 금요성령집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p> <p>EM예배 (1부)오전9:30 EM예배 (2부)오전11:00 한어 청년부 주일오후1:00</p> <p><b>오명찬 담임목사</b></p> <p><b>웨스트힐장로교회</b> 예수님처럼 소통하는 교회(Communicate Like Jesus)</p> <p>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T. (818) 884-2391</p>	<p>1부예배 오전 8:00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00</p> <p>MP서울 주일 1부 예배 오전 9: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30 588 Atlas Ave. Monterey Park, CA 91755 T. (818)363-8887 Tel: (323) 837-9900</p> <p><b>최혁 담임목사</b></p> <p><b>주안에교회</b> In Christ Community Church</p> <p>T. (818) 363-5887 / www.In-ChristCC.org e-mail: iccc.office@gmail.com</p>
---	---

### O.C. / 얼바인 지역

<p>결혼교실, 사모교실, 부부교실, 아버지교실 www.GodFamily.com www.CMFM.org</p> <p><b>김철민 장로</b></p> <p><b>CMF선교회</b> 가정을 세우는 CMF Ministries</p> <p>13463 1/2 Pumice St., Norwalk, CA 90650 T. (562) 483-0191 / (714) 493-0191</p>	<p>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30 한어청년부 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5:30(월-금)/6:00(토)</p> <p>금요찬양 오후 7:30 장미안영예배 오전 11:30 영아장년부 오전 9:30, 11:30 영아장년부 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5:30(월-금)/6:00(토)</p> <p><b>구봉주 담임목사</b></p> <p><b>감사한인교회</b> 사랑받고 사랑하는 교회,전도와 선교에 정성을 다하는 교회</p> <p>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p>
--	---

<p>1부(한국어) 오전 8:00 2부(한국어) 오전 10:00 3부(영어) 정오12:00 주일학교 오전10:00 토요새벽연합예배 오전 6:30</p> <p>말씀대상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한국학교 (토) 오전 9:00 Youth Orchestra (주일) 오후 12:30</p> <p><b>민경엽 담임목사</b></p> <p><b>나침반교회</b>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교회</p> <p>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 T. (562)691-0691</p>	<p>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토요새벽예배 오전 6:00 대형청년예배 오전 11:00</p> <p>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유·초등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화-금 5:30am 토 6:00am</p> <p><b>오병익 담임목사</b></p> <p><b>남가주 베델 교회</b> 예수님이 살아계신다고 소문난 교회</p> <p>1201 S. Beach Blvd. #110 La Habra, CA 90631 T. (562) 524-2037 bethelchurch@gmail.com</p>
---	--

<p>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오전 11:00</p> <p>금요성령집회 오후 8:00 한국학교 오후 6:00 (월-금) 새벽예배 새벽 5:30 (월-금)</p> <p><b>박재만 담임목사</b></p> <p><b>남가주순복음교회</b> 죽어가는 세상을 성령의 능력으로 살리는 교회</p> <p>10871 Western Ave., Stanton, CA 90680 T. (714) 952-0191 / www.socalfgc.com</p>	<p>주일예배(KM) 주일 11:00am 영어예배(EM) 주일 9:00am 교육부예배 주일 11:00am (유아유치부,유초등부,중고등부) 토 6:00am</p> <p>금요찬양예배 8:00pm (매일 두번예배 금) 새벽예배 화-금 5:30am 토 6:00am</p> <p><b>안창훈 담임목사</b></p> <p><b>늘푸른선교교회</b> Mission Community Church</p> <p>2216 E. South St., Anaheim, CA 92806 T. (714)808-9191 / www.missionways.org mcc.office.email@gmail.com</p>
--	---

<p>주일예배 오후 12:20 금요찬양예배 오후 8시:30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p> <p><b>민승기 담임목사</b></p> <p><b>갈보리새생명교회</b> 행복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p> <p>111 W. Las Palmas Drive, Fullerton, CA 92835 T. (714)615-9191, 995-5351 john_m9191@yahoo.com</p>	<p>1부예배 오전 8:45 2부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9:30</p> <p>금요 Alpha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오전 6:00 (토) 오전 6:00 (토)</p> <p><b>이서 담임목사</b></p> <p><b>미주비전교회</b> 역동적인 예배가 살아있는 비전공동체</p> <p>2536 W. Woodland Dr., Anaheim, CA 92801 T. (714)821-9900,9901 / visioncc.org</p>
--	--

<p>1부예배 오전 7:15 2부예배 오전 9:15 3부예배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2:00</p> <p>성인영어예배 오전 9:15, 오전 11:30 일부어예배 오후 1:30 주일학교 오전 9:15, 오전 11:30</p> <p><b>김한오 담임목사</b></p> <p><b>베델한인교회</b> 역동적 복음, 능동적 선교</p> <p>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p>	<p>주일예배 1부 오전 7:30 2부 오전 9:15 3부 오전 11:30 4부 오후 2:00</p> <p>수요예배 오후 7:30 중등부 오전 9:15 고등부 오전 11:30 한어부 오전 11:30 KM/대학청년부 오후 2:00</p> <p><b>권혁민 담임목사</b></p> <p><b>얼바인온누리교회</b> 다음세대를 세우고 복음으로 다가서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p> <p>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 (949)261-9100 / vision.onnuri.org</p>
---	--

<p>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30 4부예배 오후 2:00</p> <p>EM 예배 오전 1:30(청년 영어) 새벽 예배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장년부 수요성령기도회 오후 7:30 FAMC예배 오전 11:30(청년 영어)</p> <p><b>얼바인 침례 교회</b> 하나님의 꿈이 있는 기쁨의 공동체</p> <p>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T. (949)857-9425 / www.irvinechurch.com</p>	<p>주일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45 3부찬양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p> <p>금요찬양기도회 오후 7:30 청년부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토) 수요예배 오후 7:30</p> <p><b>남성수 담임목사</b></p> <p><b>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b>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워 초대교회 역사 이룩하는 교회</p> <p>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rcoc.com</p>
---	---

<p>주일예배 오전 7:30 수요예배 오후 7:30 EM(Youth)오전11:00</p> <p>청년부 주일 오후 1:30 새벽기도 화-토 오전 6:00</p> <p><b>김인철 담임목사</b></p> <p><b>오렌지카운티장로교회</b> 교회와 나는 하나이며 기쁨도 슬픔도 함께하는 운명공동체</p> <p>940 W. Wilshire Drive, Santa Ana, CA 92707 T. (714)549-0121 www.myocpc.org</p>	<p>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p> <p>금요찬양기도회 오후 7:30 청년부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토) 수요예배 오후 7:30</p> <p><b>남성수 담임목사</b></p> <p><b>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b>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워 초대교회 역사 이룩하는 교회</p> <p>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rcoc.com</p>
---	---

<p>1부예배 오전 07:30 2부예배 오전 09:30 3부예배 오후 11:30 4부예배 오후 2:00</p> <p>새벽예배 평일 오전 05:30 토요일 오전 06:00 금요성령예배 오후 08:00</p> <p><b>한기홍 담임목사</b></p> <p><b>은혜한인교회</b> 행복한 교회 삼금받는교회 세계선교를 마무리짓는 교회</p> <p>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p>	<p>주일예배 오전 11시 30분 어린이예배 오전 11시 30분 찬양예배 오후 7시(수) 제자성서 오전 9시 30분(금) 중보기도 오후 8시(목) 새벽기도 오전 6시(화-토)</p> <p><b>람학춘 담임목사</b></p> <p><b>라구나힐스연합감리교회</b>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p> <p>24442 Moulton Parkway, Laguna Woods, CA 92637 T. (949)380-7777 / www.lagunaumc.org</p>
--	---

<p>1부예배 오전 8시 2부예배 오전 9시 30분 3부예배 오전 11시 20분 영아예배(EO) 오전 9시 30분 청년예배 오후 1시 30분</p> <p>수요예배 오후 7시 30분</p> <p><b>백정우 담임목사</b></p> <p><b>남가주동신교회</b> 복음을 복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성도를 성도되게</p> <p>2505 Yorba Linda Blvd. Fullerton, CA 92831 Tel. (714) 680-9556-7 www.dongshinchurch.com</p>	<p>1부 예배 오전 8시 2부 예배 오전 11시 수요예배 오후 7시 30분 Youth/ College 주일 오전 11시</p> <p>주일학교 오전 11시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분</p> <p><b>안성복 담임목사</b></p> <p><b>다우니제일 교회</b> 새 사람을 일으켜 (엡4:24)</p> <p>7948 Quill Dr. Downey, CA 90242 T. (562) 861-1004 www.downeyfirstchurch.org</p>
---	--

### EM CHURCH

<p>Sunday Celebration Services: 9 AM &amp; 11 AM Wednesday College Fellowship: 7 PM</p> <p><b>PASTOR JUSTIN KIM</b></p> <p><b>Bethel English Church</b></p> <p>18700 Harvard Ave, Building C, Irvine, CA 92612 T. (949) 385-3051 / www.ocbethel.com</p>	<p>EM Sunday Service: 12:00 PM Children's &amp; Youth Services: 10:30 AM Friday Night Bible Study ( Jr. High - Young Adults): 7:30 PM</p> <p><b>PASTOR JAMES KWAK</b></p> <p><b>First Presbyterian Church of OC</b></p> <p>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1-2029 / www.oc1church.com</p>
---	---

<p>Placentia Site Sunday Services: 10 AM Artesia Site Sunday Services: 11:30 AM, 1:15 PM</p> <p><b>PASTOR HAROLD KIM</b></p> <p><b>Christ Central of Southern California</b></p> <p>Artesia: 11841 178th St, Artesia, CA 90701 Placentia: 500 Bradford Ave, Placentia, CA 92870 T. (562) 246-0363 / www.christcentralsc.com</p>	<p>Sunday Service: 9:30 AM Children's and Youth Services: 11:30 AM on Sundays, 8:00 PM on Fridays</p> <p><b>PASTOR RONNIE PARK</b></p> <p><b>Good Stewards Church</b></p> <p>2701 S Woodgate Dr, West Covina, CA 91792 T. (626) 913-6611 / www.gschurch.org</p>
---	---

<p>Sunday Services: 9 AM, 11 AM, and 2 PM Youth Services: Sundays at 11 AM, Fridays at 7:30 PM Sunday School: Sundays at 11 AM</p> <p><b>PASTORS DAVID LEE &amp; SUNG HONG</b></p> <p><b>Cornerstone Church</b></p> <p>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www.cornerstonetv.com</p>	<p>Sunday Services: 11:45 AM</p> <p><b>PASTOR DAEVIT YOON</b></p> <p><b>Inland Church</b></p> <p>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 inlandem.org</p>
---	---



## 엘에이 동부 로렌하이트에 있는 아름다운교회에서는 청년부를 담당할 파트타임 사역자를 청빙합니다.

- 자격: 현재 정규 신학교 재학중이거나 졸업생으로 청년사역에 열정과 열정과 소망이 있는 분
- 제출서류:
  - 이력서 (사진 첨부)
  - 자기소개서 (목회 소명 간증 포함)
  - 신학대학원 재학 혹은 졸업 증명서
  - 목사 안수 증명서 (목사 안수 받은 분)
  - 직전 교회 담임목사 추천서(필수) 외 1명의 추천서
  - 설교 컴퓨터 파일 혹은 CD
- 제출방법: beautifulchurch@hotmail.com
- 기타: 서류검토후 면접하실 분은 개별적으로 연락드립니다.



아름다운교회

## 양로병원 노인 분들을위한 제25회 찬송가 경연대회

올해로 23년째 양로병원을 봉사 하던 중에 어려운 형편으로 가족들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외로움도 달래고 치매 예방을 위해 찬송가를 암송하므로 매일 소일거리가 생겨, 정신적으로 좋은 결과가 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같이 섬겨주실 봉사자와 동역자 구합니다.

### 찬양대회 장소와 예배시간

장소 : 중앙양로병원 (Mid Wilshire Health Care Center)  
 시간 : 2018년 6월 16일(토) 오전 10시  
 676 S. Bonnie Brae St., LA, CA 90057

상금 후원을 도와주실 분을 찾고 있습니다.  
 체크이름 : Loving Church of the Disabled =>L.C.D

### 협찬

나성열린문교회, 은혜한인교회, 나성순복음교회, LA사랑의교회  
 가주처과 대표 오득재 원장, 마동환 변호사 그룹, 팔가순대  
 뉴욕제과, 한인동포재단, OC 한인회, 행복재단(한영재)  
 올림픽 칼국수, M.G.M

후원 기독교일보, FHM미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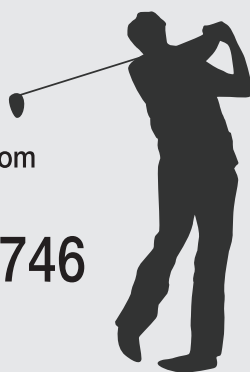
## 장애우사랑교회

연락처 : (213)870-8474/ Fax:(323)870-5522  
 P.O.Box 742017 Los Angeles, CA 90004

## 크리스천 자녀를 위한 골프 교실

저렴한 비용으로 골프와 성경공부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  
 \*픽/업/가/능

P.G.A Player Tour	(12-14살 1~2명 모집)
P.G.A Player Tour	(8-11살 1~2명 모집)
	(6~7살 1~2명 모집) 초보가능



■ Email : mrjacob601@hotmail.com

■ 문의 : 최 제이콥 프로

T(310) 598-0746

LA예담교회 1134 S.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20

\*전도사님을 찾습니다.

### (최 제이콥 목사)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New Bridge University Golf Management  
 The Reformed University 대학원  
 Dea Han Theological Seminary U.S.A 신학박사  
 LA 예담교회 담임목사

## 사랑은 모험입니다!



강준민 목사  
 새생명비전교회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또한 사랑하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사랑처럼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참된 사랑처럼 고통스러운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사랑 때문에 상처를 받고, 사랑 때문에 남몰래 눈물 흘립니다. 사랑은 늘 우리 삶의 중심에 있습니다. 사랑은 산소와 같습니다. 우리가 호흡하는 데 산소가 필요한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데 사랑이라는 산소가 필요합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모험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모험인 까닭은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을 만나 서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랑의 첫 만남은 낯선 만남입니다. 낯선 사람끼리 만나서 서로의 생애를 위탁하는 것은 대단한 모험입니다. 모험에는 언제나 위험이 따릅니다. 위험이 없는 모험은 없습니다. 반면에 모험에는 상상할 수 없는 보상이 주어 집니다. 그래서 모험입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거절당하는 모험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상처 받을 수 있는 모험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버림받을 수 있는 모험까지 감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인 된 인간을 사랑하신 것은 대단한 모험을 시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랑 때문에 거절당하셨습니다. 버림 받으셨습니다. 사랑 때문에 엄청난 상처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랑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처절하게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랑 때문에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사랑 속에는 슬픔과 기쁨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만약 슬픔 때문에 사

를 입고, 그들의 언어로 소통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성숙한 사랑은 사랑하는 대상에 대해 관심을 갖고 그에 대해 지속적으로 배웁니다. 성숙한 사랑은 자신의 생각을 고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랑하는 대상과 같은 눈높이에서 대화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배려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강요하지 않고 사랑하는 대상의 생각을 배우고, 그의 언어를 통해 소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면에서 사랑은 평생 배우는 것입니다. 성숙한 사랑을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배우고 또한 사랑의 기술을 연마해야 합니다.

참된 사랑은 동사(動詞)입니다. 사랑하는 대상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까닭에 하늘에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복음을 전해 주셨습니다. 사랑이란 사랑하는 대상을 찾아가서 가장 소중한 것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선교는 사랑 때문에 사랑하는 대상을 찾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장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누어 주기 위해 먼저 다가가는 것입니다. 선교의 기쁨은 영혼을 구원하는 기쁨입니다. 그 기쁨은, 경험해 본 사람만이 아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선교를 다녀온 사람들이 또 다시 선교를 떠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 된 우리는 누구나 선교사입니다. 직접 가는 것이 중요하지만 직접 갈 수 없다면 선교를 위해 기도하고 후원함으로 동역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올해도 선교하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 위에 풍성하시길 빕니다.

## 당신은 어떤 교사가 되기 원하는가 (8)



제이슨 송 교장  
 새언약초중고등학교

만약 당신이 회사의 사장이나 조직의 책임자라면 자신과 함께 일할 직원으로 어떤 조건의 사람을 뽑겠는가? 학벌일 수도 있고, 다양하고 풍성한 경험일 수도 있고, 성실성과 좋은 성품일 수도 있다. 교회나 기독교 단체라면 당연히 신앙연륜이 많고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을 선호할 것이다. 하지만 좋은 일꾼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자신에게 일을 맡길 주인을 이해하고, 알고, 주인이 원하고 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 헤아리는 마음과 태도다. 말은 고용주를 위해 일한다고 하면서도, 고용주가 아닌 자기가 원하는 방향과 방식대로(그것이 아무리 선하고 좋은 일이라 해도) 일을 처리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

미국 플로리다 남해안 마이애미시는 쿠바와는 500km, 바하마스와는 296km 떨어져 있다. 고속 보트를 타면 몇 시간 만에 갈 수 있는 거리다. 그래서 종종 마약 밀매단이 레이더 차단기를 설치한 고속 보트를 타고 해안경비대의 경비망을 교묘히 뚫고 다니며 마약을 운송한다. 이들을 단속하려면 마약 밀매단이 타고 다니는 것보다 더 속력이 빠른 보트가 있어야 하는데, 문제는 정부에 그런 경비정을 구입할 재정이 없다는 것이었다.

이 문제가 마이애미 지역사회에 불거질 즈음, 한 사업가가 해안경비대의 마약 단속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자신이 책임지겠다고 나섰다. 언론 매체들은 앞다투어 이 소식을 보도했고 정치인들도 그 사업가를 주목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며칠 뒤 그 사업가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 밝혀지면서 “그런 사람의 ‘자선’은 받아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거세게 일어났다. 알고 보니 그는 대형 포르노 웹사이트의 운영자였다. 결국 마이애미 시 정부는 “모든 사람이 눈살 찌푸리는 일을 통해 번 돈으로 마약 단속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그의 지원을 거절하고 말았다.

세상 사람들이 과정과 수단에 문제가 있으면 목적과 의도가 아무리 좋아도 이의를 제기하고 잘못된 것을 바로 잡으라고 항의한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어떠한 해야겠는가?

다. 또한 그는 도망친 나귀를 찾아 집을 떠난 자신을 걱정할 아버지를 신경 쓰는 효자였고, 자신의 힘으로 풀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께 맡길 줄 아는 신앙인이었으며, 왕이 된 자신을 무시하는 자들을 벌하지 않는 온유한 사람이었다(삼상9:5-10, 10:27). 또한 그는 민족을 사랑하는 애국자였고,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할 때를 정확하게 아는 지도자였으며, 강한 적과의 싸움도 두려워하지 않는 용사였다(삼상11:6-7). 우연히 벌어진 일이었지만 성령충만과 예언의 은사까지 체험하고, 왕이 된 이후 이스라엘을 위협하던 주변 민족들을 확실하게 평정하는 위대한 업적을 이루어 낸 사람이었다(삼상 10:10, 14:47). 사울을 찾아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인복은 정확했다. 그는 다윗보다 훨씬 더 뛰어나고 훌륭한 왕이 될 재목이었다. 하지만 사울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명하신 바가 아니라 자신이 알고 배운 바에 따라 행동하는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다.

블레셋과의 전쟁을 시작하기 위해 사무엘 대신 제사를 드리고, 야말렉을 진멸하라는 명령을 거역하고 그들의 왕 아각과 가족들을 전리품으로 남겨 놓은 것이다(삼상 13:8-9, 15:8-9). 그렇다고 그가 내세운 명분이 아주 잘못된 것은 아니었다. 늙은 선지자의 늑장 때문에 바람 앞에 겨겨가는 등불 같은 조국 이스라엘을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었고, 야말렉의 기쁨지고 좋은 가족들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제사를 드릴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문제는 그의 마음속에 숨겨진 동기와 해결 방식이었다. 우리는 사울이 성장 과정에서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 알 수 없지만, 왕이 된 이후 그가 보여 준 모습을 통해 그가 어떤 사람에게 어떤 가르침을 받았는지 짐작할 수 있다. 나무는 열매로 아는 법이니 말이다(눅6:44).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즉 하나님이 어떤 분이든 무엇을 원하시는지, 어떤 원칙을 따라 어떤 방식으로 일하시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었다. 사울과 달리 말이다. 하나님은 그분의 올바른 가르침에 따라 일하며 살아갈 사람을 찾으신다.

를 이끌어 내는 중요한 요인이었



# 역사상 가장 정확한 말 쓰신 예수님처럼 바른말의 품격 배우자

### 〈바른 말의 품격〉 한글편 · 한자편 펴낸 김준수 목사

‘아 다르고 어 다르다’는 속담처럼, 목회자가 같은 내용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 청중들은 정반대 반응을 보일 수 있다. 그리고 세종대왕이 한글을 세계 어느 나라보다 쉽게 만들었지만,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국어는 순수한 한글에 중국에서 건너온 한자어와 서구에서 온 영어와 불어 등 외래어들이 한데 섞여 굉장히 까다롭다.

한글 맞춤법과 외래어 표기법에 어긋나지 않아야 말이나 글에 품격이 따라온다. 둘 중 하나라도 틀리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 권위를 의심하게 되기도 한다. 이에 김준수 목사는 〈바른말의 품격〉 한자편과 한글편을 잇따라 출간해 ‘열에 아홉은 틀리는’ 우리말과 사자성어를 바로잡고 있다. 김 목사는 이 외에도 ‘신·구약 성경신학 7권’ 중 첫 권 〈모세오경: 구약신학의 저서지〉, IMF 당시 베스트셀러에 오른 〈내 삶을 다시 바꾼 1%의 지혜〉 등을 썼다. 다음은 김준수 목사와의 인터뷰.

**-목회자들이 가장 쉽게 틀리는 말은 무엇인가요.**

굉장히 많지만, 그 가운데 ‘절체절명(絶體絶命)’을 ‘절대절명(絶對絶命)’이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삼수갑산(三水甲山)’을 ‘산수갑산(山水甲山)’이라고 하고, ‘염치불고(廉恥不顧)’를 ‘염치불구(廉恥不拘)’로 쓰는 분들도 많습니다.

사실 국어는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접미사 쪽의 변화가 굉장히 많기 때문입니다. 틀린 말인지도 모르고 자꾸 쓰게 됩니다. 예를 들어 ‘내 노라하는 분들’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내로라’입니다.

‘홍해를 건넜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는 ‘믿어지지 않는다’로 사용합니다. 이 두 개는 학자들 간에도 논란이 있습니다. ‘믿어지지’는 영어 수동태형의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에 의해서’라는 표현도 번역투라 매끄럽지 못합니다.

가장 힘든 부분은 뉘앙스 차이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라는 말이 있는데, 섭리(攝理, providence·기독교에서 사랑으로 가득 찬 전지전능한 신이 세계의 사건들을 관장하는 것)는 기독교 세계관적 표현입니다. 그런데 많은 목회자들이 이것을 ‘우연(偶然, coincidence·아무런 인과 관계가 없이 뜻하지 아니하게 일어난 일)’이라는 느낌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른말의 품격- 한글편 김준수 기독교문서선교회 | 376쪽

다. ‘종로에서 온 좋게 친구들을 만났다’는 식입니다. ‘어제까지 계속 비가 왔는데, 하나님께서 온 좋게도 오늘은 좋은 날을 허락하셨습니까’ 다는, 기독교 세계관을 훼손시키는 발언입니다.

‘운수(運數·이미 정해져 있어 인간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천운과 기수)’나 ‘인연(因緣·사람들 사이에 맺어지는 관계)’ 같은 말들은 불교 용어입니다.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이것도 불교식 표현입니다. ‘나락(那落·죄업을 짓고 매우 심한 괴로움의 세계)에 난 중생이나 그런 중생의 세계’로 떨어졌다’는 말을 쓰는 목사님도 있었습니다. 이 역시 불교 용어입니다. 단어를 함부로 사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바른 말을 한다는 것은, 설교가 은혜롭고 좋은가를 따지기 전에, 세계관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성도들 중에도 각 분야의 지식인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목사님들의 타당하지 못하거나 함리적이지 않은 표현들을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설교자나 강연자라면, 가급적 표준어를 구사해야 합니다. 청중을 실족하게 하거나 청중으로부터 비난받을 일을 해선 안 될 것입니다.

**-목회자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예정하심이라고 생각해서인지, ‘수동태형’을 유독 많이 사용하는데요.**

무엇보다 표현의 미숙함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야 정확한 표현이 될 수 있을지, 깊이 고민하지 않은 것이지요. 한글 맞춤법에 의한 정확한 표현이 요청됩니다. 그 표현이란 ‘올바른 단어 사용’에서 시작됩니다. 단어들어 적재적소(適材適所)에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말이나 글에 타고난 은사를 받은 사람도 있지만, 표현 능력 향상에는 노력과 심사숙고가 필요합니다. 정확하게 문장을 구사하면서, 성경에 입각해 총체적인 은혜의 빛 안에서 문장을 내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문장이 정확한 것보다 은혜로운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십니다. 예전에는 그랬을지 몰라도,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설교를 은혜롭게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성경에 입각한 올바른 표현과 바른 단어 사용을 통해 성경의 세계를 유감없이 나타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세계, 기독교적 세계관을 정확한 단어와 문장의 표현력으로 내뿜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책 두 권의 제목인 ‘바른 말’이란 무엇일까요.**

바른 말이란 올바른 단어를 쓰고 표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바른 신학과 바른 신앙, 바른 생활 태도에서 나오지 않을까 합니다. 결국은 바른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겠지요. 예수님께서도 말(言)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하셨습니다.

인류 역사상 말을 가장 은혜롭고 정확하게 쓰신 분이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불필요한 말을 전혀 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른 말이란 제가 볼 때 은혜로운 말, 격려하는 말, 위로하는 말, 세우주는 말, 인내하는 말, 덕 있는 말, 결국 예수님처럼 하는 말일 것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뿜어내는 말, 신앙인들이 이런 말을 쓴다면 사회에서 문자 그대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특히 목회자들은 말 한 마디를 잘못 해서 당회가 깨지거나 장로들과 사이가 나빠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최악의 경우 말 한 마디 때문에 교회가 갈라지기도 합니다. 친구 목사님들도 말로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말이 얼마나 중요할까요?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에 금 사과나라(잠 25:11)’는 말씀도 있습니다. 말 때문에 저도 많은 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천에게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절감했습니다.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관계 속에서 또는 강연에서 말로 실수하지 않으려 노력합니다. 말은 한 번 내뱉으면 주위담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대웅 기자

# 따뜻한 신앙인들 되어 아파하는 세상 향해

### 신앙 재점검하게 하는 ‘따뜻한 도서’



따뜻한 신앙인들 이효준 크리스천투데이 | 392쪽

치한 직장에서 상사 대신 봉사활동에 참석한 것이 계기가 됐다.

그는 그곳에서 한 끼를 해결하는 이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해, 그들이 허겁지겁 끼니를 해결하는 동안 클라리넷과 하모니카로 찬송가와 동요 등을 들려주고 있다. 그는 “봉사는 곧 나의 생활이고, 봉사활동에는 즐거움만 있다”고 한 지역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밝히기도 했다.

책에는 가난하고 힘들었지만 마음과 믿음만은 따뜻했던 저자의 어린 시절 신앙의 이야기가 오늘날의 사뭇 달라진 그것과 자주 오버랩돼 다음과 같이 등장한다.

“어린 시절엔 성탄절 한 달 전부터 거리마다 캐럴 소리에 기뻐했습니다. 한 해가 기울고 다시 찾아오는 희망의 새 아침을 기다리며 설렘던 추억이 새삼 떠오릅니다. 교회 안에서는 성탄절 발표회를 위한 연극과 찬양을 준비했고, 성탄절 이브에는 발표회를 마친 후 선물 교환에 상당한 기대를 하며, 마음 놓아 함께 즐겁게 지낸 일들을 추억합니다. ... 하지만 오늘날에는 소박하고 인정 넘었던 웃음들이 사라지고, 홀로 이기적인 성탄을 맞이하는 성도가 많은 것 같습니다. 주님의 오심이 예전과는 사뭇 다르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인사말에서 저자는 “어린 시절 가난과 외로움 속에 곳곳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훗날 어렵고 힘든 이들을 위해 봉사하며 살겠다는 소박한 꿈을 실천하기 위해 부족하지만 지금까지 나눔과 배려의 삶을 살았다”며 “부르심 받는 그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 피와 땀과 눈물을, 아파하는 세상을 위해 따뜻한 신앙인으로 살아갈 것”이라고 다짐한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파하고 힘들었던 지난 시절을 회상하며, 현재 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들을 소신껏 전하고 싶어 글을 쓰게 됐다”며 “부족하지만 함께 간증하는 시간들이 되면 좋겠다”고 겸손한 소감을 전한다.

이와 함께 “이 땅에 일궈놓은 선배들의 신앙의 뿌리를 다시 한 번 재점검하고 초대교회의 정신으로 돌아갈 수 있는 순교의 정신과 거듭나는 변화의 시간들이 되기를 갈망하며, 이 땅 모든 신앙인들이 따뜻한 믿음의 신앙인들이 되어, 아파하는 세상을 향해 주님의 위로와 사랑을 전달하며 다짐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을 간절히 소망하고 있다. 이대웅 기자

# 사랑과 섬김이 있는 곳에 행복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질병과 가난에 허덕이는  
어린이들에게 희망의  
빛이 됩니다.



사랑과 섬김으로  
세상을 밝히는  
World Share가  
바로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World Share USA

621 S. Virgil Ave. #260, LA, CA90005 후원 문의: 강태광 목사 T.(323)578-7933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Classified AD

**헤밀리자동차 그룹**  
 www.alexkimtrading.com

대표전화 323.737.5900  
 David Kim 213.703.7077

**중고차의 황제**  
 출장방문 가능, 일요일도 오픈  
 933 S. Western Ave, LA, CA 90006

**빠른 송금·환전 빠른 송금·환전**  
 송금 송금·환전 송금

**미국 <.....> 한국 ₩**

7 Days 24 Hours T.(213)400-6363

**CD PRINTING**  
 교회학교, 부흥회 시디앨범, 신학교 강의 오디오북 소장, 대량 모두 제작이 가능합니다.

323.265.0244 junimmedia@gmail.com  
 www.junimmedia.com

프린트CD + CD봉투 + 라벨  
 1,000장 \$350  
 3,000장 \$950 (3천장 이상시 디자인무료)

\$160 (디자인 포함)  
 Retractable Banner \$140  
 Stand X-Banner \$65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골드핑거**  
 T.213.386.5858

직접재단/직접재봉/남녀맞춤/명품 옷수선  
 Master Tailor 김병호

975 S. Vermont Ave, #102, Los Angeles, CA 90006

**헤어컷 특강**

미용을 배워 선교하는데 사용하실 분들을 위해 특강을 엮습니다.

- 대상: 전도와 선교를 위해 사용하실 분 (현재 프로미용인도 OK)
- 회비: 월 \$10
- 강사경력: 전 국가대표 선수권자
- 문의: 213.392.2323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9가 로데오 갤러리 몰  
**오페라 하우스 베이커리**  
 교회행사용

**CAKE, 빵 주문시 SALE**

케익 및 빵 단체주문 환영

T.(213)384-1999 operahousebakery@gmail.com  
 833 S. Western Ave, #38, LA, CA 90005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www.easy2424.com  
 한국식 포장이사 가능

**귀국·시내·타주이사·차량운송**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무료 전화 (877)580-2424  
 (310)538-3333

18118 S. Broadway St #B., Gardena, CA90248

**리프팅 라인·지방분해**

최신장비도입  
 \*리프팅 라인 4회 \$999  
 \*부분지방 분해 5라인 8회 \$999

• 초스피드 다이어트  
 1달에 7파운드~25파운드 감량

- 각종 피부병과 아토피
- 습진 화농성 여드름

치아 파우더 3대째 기업으로 이어온 영선한의원  
 잇몸 시큰거림 풍치예방 3달분 \$60

배 빠는 속변약!  
 먹으면서 체중을 줄이고, 몸 전체에 부종이 빠지는 약  
**한달 \$50**

영선한의원 Young Sun Acupuncture & Herbs Clinic (213)380-7800  
 각종보험취급 (교통사고 전문 병원)

LA MEDICAL CENTER 3663 W 6th St, #308  
 Los Angeles CA 90020(6가와 아드모어)  
 영업시간 : 월~금:10시~5시 / 토 10시~2시

혈당수치가 내려가면  
**행복지수가 올라갑니다**  
 식후 혈당 억제를 도와 혈당 걱정 없는 인생, 이제 프로지로 활짝 웃으세요.

**프로지 PRO-Z**

혈당수치 조절 및 혈당관리의 시작  
**나이와 상관없이 있으며 빠를수록 좋습니다.**

일본의 전국 약사 1,000명에게 당뇨병 신지식을 가르치고 있는 가사하라 도모코 약사의 저서 "당뇨병, 약을 버리고 아연으로 끝내라" 에서 미네랄의 하나인 '아연'에 당뇨병 치료의 열쇠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비타민이나 미네랄이 부족해서 고혈당이 되었다면 당뇨약을 먹거나 식사량을 줄이는 것만으로는 증상이 개선되지 않는 게 당연하다.

인슐린은 혈액 중의 포도당을 세포에 들여보내서 높아진 혈당을 낮추는 작용을 하는 유일한 호르몬이다. 이러한 인슐린의 작용에 아연이 꼭 필요하다. 아연이 부족하면 혈당 조절 기능이 나빠지고, 합병증의 위험성이 커진다.

**프로지의 특별한은 아연(Zn)의 흡수력과 지속력**

송문기 박사의 세계적 특허 Cyclo-z 관련 기술이 적용되어 귀하의 체내 아연(Zn) 흡수력과 지속력이 혁신적으로 증가됩니다. 이제 활발한 아연대사(Zinc Metabolism)가 가져다 주는 변화를 직접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임상실험이 입증하는 프로지의 효능!**

40년간 Zinc Metabolism을 연구해온 송문기 박사는 아연이 근육세포의 당대사와 체장 베타세포의 인슐린 반응도에 깊게 관여 되는 사실에 주목하여, 아연에 CHP를 첨가한 신합성 물질(CHP Plus Zinc) 프로지(PRO-Z)를 개발했습니다. 정부 연방 병원인 US VA Hospital에서 47명의 당뇨환자를 대상으로 12주동안 프로지(PRO-Z)를 복용한 결과 당화혈색소(HbA1c)가 평균 22%감소, 70% 환자에서 혈당 수치가 29% 개선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Source: Metabolism, Vol 47, No 1(January, 1998: pp 39-43) 미국특허 # 5,411,748 and #5,997,908

**아시나요?**  
 당뇨 치료, 당뇨의 근본적 개선을 위한 첫걸음

**당화혈색소(HbA1c) 1% 줄이기에서 시작됩니다**  
 혈당수치를 조절한다고 치료되는 것이 아닙니다.

당화혈색소를 1%만 줄어도 43% (하지질환) 37% (미세혈관합병증등)이 줄어듭니다

당화혈색소(HbA1c) 조절목표는 **6.5%**

송문기 박사, 그는 누구인가?  
 • 국제표준 제1회 송문기 박사  
 • 40년간 당뇨병, 비만 그리고 난치병 연구  
 • 노년층의 영양학 분야 연구가수  
 • 이 연방재정규인정된 케럴린터 수석 연구원들

1병 \$69+Tax  
 3병 \$180+Tax  
 6병 \$350+Tax

핵심은 아연의 흡수 (CZP 특허물질 아연의 흡수율이 획기적으로 증가)

문의전화 **213.434.1170**  
 621 S. Virgil Ave, Suite 200 Los Angeles, CA 90005 www.prozusa.com / prozusa1@gmail.com





예루살렘 성의 외관



성 안의 모습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입구

영성으로 가는 성지순례 이야기(76)

# 예루살렘 성벽

다윗이 여부스 족을 물리치고 시온 산에 다윗 산성을 세운지(삼하 5:6-9, 역대상 11:4-9) 3007년이 지난 오늘날 예루살렘 성은 세계 현존하는 어떠한 성보다 가장 의미 있고 규모가 크며 가장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성이다. 다윗은 헤브론에서 왕으로 기름부음을 받고 30세에 왕이 되어 40년을 다스렸는데 헤브론에서 7년 6개월을, 예루살렘에서 33년을 수도로 하여 온 이스라엘을 다스렸다.(삼하 5:4-5)

시대에 따라 크기와 인구를 달리 하며 영육의 세월을 보낸 예루살렘 성은 지금도 여전히 안개 속에 쌓여 있는 미궁의 세계처럼 여러 종파, 여러 민족들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아름답지 못한 도시가 되고 있다. 최근(2018년 1월)에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텔아비브에 있는 미국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로 하여 중동 지역에 긴장감을 더하고 있다.

다윗 시대에는 지금의 성보다 훨씬 남쪽에 성(시온 산)이 있었다. 기드론 골짜기와 힌놈의 골짜기를 감

싸 안고 기혼 샘을 중심으로 성이 건설되었으나 솔로몬 시대 성전을 건축하면서 점차 도시가 상부 쪽으로 이동하여 상부와 하부로 나누어지는 도시가 된다.

성 안에는 치즈 골짜기가 성의 중앙을 관통하고 있으며 골짜기의 모습을 지금은 찾아볼 수 없지만 지금도 옛 성의 중요한 길 중의 하나가 되고 있다. 다마스쿠스 문으로부터 일직선으로 길이 났지만 지금은 길의 남쪽 끝 부분에 통곡의 벽이 있어서 통곡의 벽으로 들어오는 북쪽 문까지 치즈 골짜기를 형성하고 있다.

다윗과 솔로몬의 통일왕국 시대를 거치면서 이곳은 이스라엘의 영적, 경제적, 정치적, 종교적 중심지가 된다. 그러나 BC 931년 르호보암의 남유다와 여로보암의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지면서 사실상 힘을 잃기 시작한다.(왕상 14:21-15:24, 대하 10-16)

여로보암의 북이스라엘은 독자적으로 벤엘과 단에 성소를 만들고 예루살렘 성전을 대항하였고 역대

남유다 왕들은 우상숭배에 빠져 하나님의 성을 관리하지 못했다. 결국 성은 바벨론에 의하여 깨지고(BC 586) 이어져서 계속된 외세의 지배하에 있게 된다. 외국이 지배하면 당연히 도시 발전은 이루어지지 않는 법이다. 그래도 비잔틴 시대는 기독교의 황금시대로 도시가 북쪽까지 멀리 커지면서 많은 발전을 한다.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성령강림과 초대교회의 생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시대는 흘러 오스만 터키는 1517년 예루살렘을 파괴하면서 중세사에 등장한다. 술탄이만 황제는 성을 파괴한 후 잠을 자다 굶주린 사자들을 만난 후 예루살렘 성을 재건축한다.(기념으로 사자 4마리 문양을



서병길 목사 전 GMS 파송 이스라엘 선교사 풀러신학교 선교목회학 박사

양의 문 위에 설치하였다.) 그것이 1527년 경이고 1537년부터 1542년까지 성이 완성된다. 그 성은 오늘날까지 지속되고 있다.

최후의 만찬은 이 성 안에서 이루어졌으나 지금은 시온 문 밖에 있다. 골고다 언덕은 성 밖 돌산 공동묘지에 있었으나 비잔틴 시대에 도시의 발전으로 지금은 성 안에 있다. 지금도 어느 곳이든지 파기만 하면 유적이 나오는 예루살렘 옛 성은 말 그대로 역사의 현장이며 유적의 보고이다.

1537년 경에 지어진 성은 사방 1km 정도에 둘레가 4.018m 정도 되는 규모를 가지고 있으며 성의 높이는 12m이며 모두 34개의 탑과 24개의 망루를 갖추고 있었다.

지금은 4개의 지역으로 나누어져 있다. 동북은 무슬림 지역으로 빌라도 법정(Via Dolorosa)과 베데스다 연못이 있고, 서북은 기독교인 지역으로 예수님의 무덤(성묘교회, Church of the Holy Sepulcher)이 있고 헤롯궁전을 개축한 다윗 타워 박물관(Citadel)이 있다. 서남은 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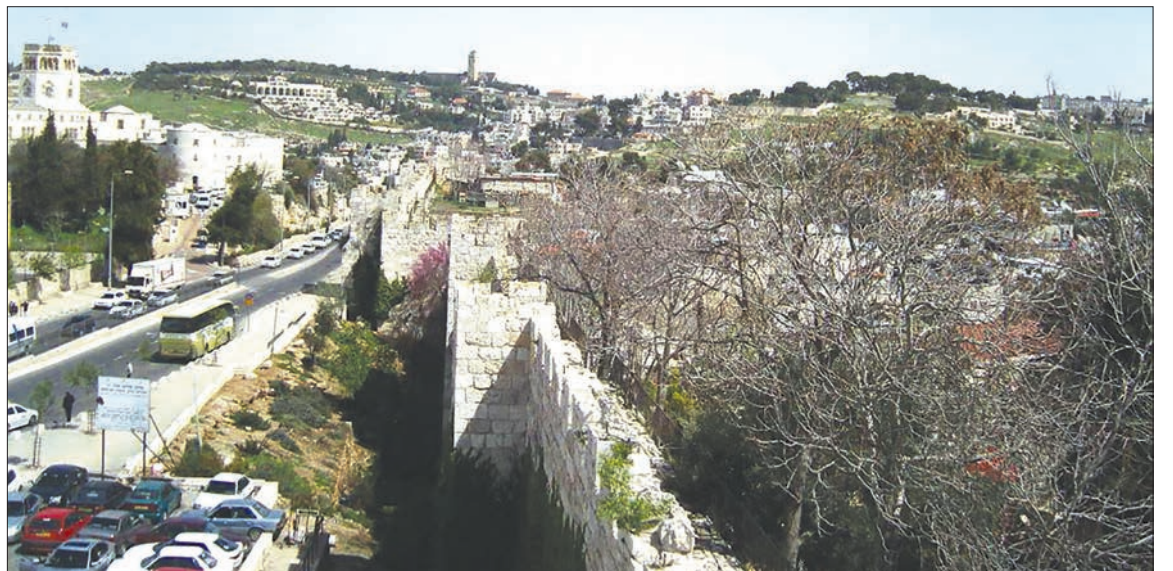
르메니아 지역으로 아르메니아 신학교를 비롯하여 교회, 박물관, 주거지들이 있다. 이곳에는 시온 산으로 나가는 시온 문이 있다. 남쪽 중간부는 유대인 지역으로 종교인들을 비롯한 다수의 유대인들이 살고 있다. 동쪽으로 통곡의 벽(Western Wall)이 있다. 로마 시대의 카르도라는 길이 있고 유다 왕국 시대의 성벽이 있고 70년 성이 파괴될 때 일부가 남은 벤트하우스라는 유적도 있으며 유대 예술가들과 제3성전을 꿈꾸는 종교 교육 기관 들어서 있다. 그리고 동남부 한복판에 성전산(Temple Mount)이 있고 황금사원(Dome of the Rock)이 웅장하게 들어서 있다.

예루살렘 성벽을 타고 반 바퀴씩 도는 코스가 있는데 겨울에는 오전 9시에 문을 열어 오후 4시에 닫고 여름에는 한 시간 연장하여 5시에 문을 닫는다. 요금은 어른이 23세겔, 군인과 어린이가 19세겔이다. 다음 호부터는 예루살렘 성에 있는 여러 문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계속)



예루살렘 성에 대한 안내판



예루살렘 성벽에서 볼 수 있는 도시 모습

## 미주 크리스천 신학 대학교(원) 여름학기 신입생, 편입생 모집

참, (진리의길) 앞, (학문의 길) 앞, (십자가의 길)

본교 지원시 특전

- 1) 기독교 복음 선교 연합 총회(미주내), 개혁 장로회 한미 연합 총회(한국과 미주)에서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2) 대학(BA)과정이나 교역학 석사(M.Div) 과정 지원자는 첫 등록학기에 80%의 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3) 본교는 미국 신학교 협의회에 가입된 회원 학교입니다. 서로 학점 교환이 가능합니다.

### 6월 21일 개강

신학대학교

신학과(B.A) | 126학점

신학대학원

- ◎ M.Div 교역학 석사과정 | 96학점
- ◎ M.A 석사과정 | 48학점
- ◎ Th.M 신학 석사과정 | 48학점
- ◎ D.Min 목회학 박사과정 | 48학점
- ◎ Th.D 신학 박사과정 | 56학점

## 미주크리스천신학대학교 2018학년도 학위 수여식

학위 수여자

B.A : 채수전 장로  
M.Div: 정지수 장로, 김재민 선교사

일시: 2018년 6월 16일 토요일 오전 10시  
장소: 미주 크리스천 신학 대학교 채플실  
276 S.Rampart Blvd. Los Angeles, CA 90057

### 입학상담: 213-272-6031



미주 크리스천 신학대학교(원)  
Christian Theological University in America  
276 S. Rampart Blvd. L.A, CA 90057



미주 크리스천 신학대학교(원)  
Christian Theological University in America  
276 S. Rampart Blvd. L.A, CA 90057



# “성경, 우리 위해 쓰였지만 우리 의해 쓰인 것 아냐”

## 고대 근동학 권위자 존 윌튼 휘튼칼리지 구약학 교수

고대 근동에 대한 광범위한 연구를 통해 ‘고대 문헌’인 성경을 더 정확하게 이해하려 노력하고 있는 존 윌튼(John H. Walton) 휘튼칼리지 구약학 교수가 한국을 찾아 지난달 21일 서울 방배동 백석대학교 비전 센터에서 ‘고대 근동 문화와 성경 해석’이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존 윌튼 교수는 강연에서 성경이 쓰여진 시대의 문화를 감안해 가면서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것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물론 고대 근동 문화를 알지 못한 채 성경을 읽는다 해도 우리 신앙의 핵심적 부분이 영향을 받는 건 아니지만,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고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는 고대 근동 문화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 이러한 그의 연구 결과는 <고대 근동 사상과 구약성경(Ancient Near Eastern Thought And the Old Testament)>, <고대 근동 문화와 성경의 권위(The Lost World of Scripture, 이상 CLC)> 등에 잘 담겨 있다.

<고대 근동 사상과 구약성경>에서는 고대 근동의 문헌들을 정리해 당시의 종교관과 우주관, 인간관을 살펴본다. <고대 근동 문화와 성경의 권위>에서는 21개 명제를 통해 성경이 쓰여졌던 당시의 문화는 기록이 아닌 ‘구전(口傳) 중심이었음을 상기시키면서, 이에 따른 신구약의 장르별 특성을 짚고 있다. 이외에도 존 윌튼 교수는 <창세기 1장과 고대 근동 우주론(Genesis 1

as Ancient Cosmology)>, <아담과 하와의 잃어버린 세계(The Lost World of Adam and Eve, 이상 새물결플러스)>, <창세기 1장의 잃어버린 세계(The Lost World of Genesis One, 그리스심)> 등을 통해 고대 근동이라는 ‘잃어버린 세계’를 탐구해 왔다. 중요한 것은 이를 통해 윌튼 교수는 성경비평학을 신봉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한 복음주의적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 -고대 근동학 분야를 연구하기로 결정하신 이유가 있으신지요.

연구 초창기, 고대 근동에 대한 정보가 성경 속 난해한 구절들을 이해함에 있어 매우 유익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를 최선을 다해 연구해 왔습니다.

### -박사님이 주요 저서에서 말씀하시는 ‘잃어버린 세계’에 대해 간략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제 ‘잃어버린 세계 시리즈(The Lost World series)’에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결합돼 있습니다.

△현재 유행하고 있는(단순히 학문적이지 않은) 관심들에 대한 접근 가능한 논의 △주요 논의 사항에 대한 논리적인 순서를 통해 독자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 △히브리어 텍스트에 대한 새롭고 엄밀한 독법에 근거한 연구 △고대 근동 문화와 인지적 환경에 대한 지식 제공. 그리고 성경이 ‘우리를 위해 쓰여

졌지만 우리에게 쓰여진 것이 아니라’는 원칙이 작동할 때, 그 텍스트의 발화자 혹은 작성자와 당시 청중들의 이해와 소통 가운데, 텍스트 속에서 하나님의 권위 있는 메시지를 찾을 수 있는 해석학을 지속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것입니다.

이상의 접근법은 구약성서에서 잃어버렸거나 잊혀진 많은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많은 구절들을 오독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확신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신학자들이 고대 근동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최근의 일로, 이 고대의 텍스트들이 최근에도 발견되고 읽을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 -그리스도인들이 이 ‘잃어버린 세계’를 이해하고 수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까요.

독자들을 위해 책의 여러 정보들이 이용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했으나, 다소 전문적인 언급을 하는 것은 불가피했습니다. 때때로 복잡하고 기술적인 본질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불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럴 때는 온라인을 통해 제가 하는 ‘프리젠테이션’을 보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가끔은 프리젠테이션이 보다 명쾌할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 -성경을 기록할 당시는 구전 사회였지만, 지금은 문자 위주의 사회입니다. 이러한 발전이 기독교 신앙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우리는 정보를 전파하고 수신하는 방법에 있어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듣거나, 읽거나, 혹은 현대 사회 속에서 사용가능한 다양한 전자 기기 등을 통해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보를 얻는 방법은 항상 광범위한 함의를 가집니다. 그리고 그것은 기독교 신앙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각 시스템 아래서 ‘권위’에 대해 각각 다르게 취급하기 때문입니다.



존 윌튼 교수

우리는 정보를 전파하고 수신하는 방법에 있어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듣거나, 읽거나, 혹은 현대 사회 속에서 사용가능한 다양한 전자 기기 등을 통해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보를 얻는 방법은 항상 광범위한 함의를 가집니다. 그리고 그것은 기독교 신앙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각 시스템 아래서 ‘권위’에 대해 각각 다르게 취급하기 때문입니다.

### -책에서 ‘고대 근동의 우주론’을 강조하시는데, 고대 근동과 근현대 우주론의 차이와 갈등은 무엇인가요.

고대와 근(현)대 간에는 물론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고대인들은 지구가 단단한 하늘에 의해 덮여있는 평평한 디스크 같다고 믿었습니다. 고대인들은 해, 달, 별이 질료적인 대상이라는 것조차 몰랐습니다. 이외에도 차이점은 많습니다.

### -박사님의 이러한 학문적인 연구 활동이 개인적인 신앙적 고백과 부딪친 적은 없으셨는지요. 있다면 어떻게 그 갈등을 해결하셨는지요.

저는 갈등을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해석에 있어 건전한 신학과 견고한 원리는 제가 진리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항상 도왔습니다.

### -마지막으로 한국 신학계와 독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신지요.

먼저 성서의 충실한 해석자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당신의 방법론을 연마하고, 가능한 모든 도구를 사용하십시오. 성경은 우리를 위해 쓰여진 것이니, 우리에게 쓰여진 것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새로운 사고에 개방적으로 대응하며, 종래와 다른 결론을 도출한다 해서 그들을 성급하게 정죄하지 마십시오. 회의적 태도 대신, 포용하는 신앙적 자세를 가지면 좋겠습니다. 이대용 기자

# “개혁교회, 기술적 특이점 대비 위한 ‘AI 신경’ 마련해야”

‘도르트 신경 400주년의 역사적 의미와 한국교회’라는 주제로 지난 26일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강당에서 개최된 한국개혁신학회 제44차 학술심포지엄에서, 전대경 박사(평택대)가 ‘도르트 신경 회고를 통한 기술적 특이점과 인공지능 전망: <개혁주의 AI 신경>을 제안하며’라는 제목으로 발제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포스트휴머니스트들인 특이점주의자들 중 대부분은 스스로를 무신론자라고 고백하지만, 이들은 꽤나 체계적인 나름의 신학을 갖고 있는 것이 관찰된다”며 “포스트휴머니즘은 특이점 이후 기술에 의해 진화해 도래할 신과 같은(God-like) 후기 인류의 출현을 말하는 데 주저하지 않는다. 이들이 주장하는 신관은 신(漸)알미니안주의(Neo-Arminianism)의 한 부류인 ‘열린 신학(Open-Theology)’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신알미니안주의는 하나님께서 예정하시지 않고 열린 마음을

갖고 계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며, 신학 연구에 자연과학의 모델을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며 “이는 기존 개혁교회 신학의 틀, 하나님의 섭리와 예정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제한한다”고 전했다. 전대경 박사는 “도르트 회의에서 논쟁 주제로 다뤄진 사항들은 기독교 역사 전체를 통해 나타나는 아우구스티누스 대 펠라기우스 간의 논쟁이라 할 수 있다”며 “오늘날 대두되는 기술만능주의도 ‘열린 신학’의 연장선상이라는 점에서 ‘신칼빈주의와 신알미니안주의’ 간의 확장판 대립’으로 볼 수 있다. 열린 신학의 핵심은 인간의 자유의지와 능력이 창조자인 하나님의 통치권보다 우선한다는 주장이고, ‘마키나-알미니안주의’의 핵심은 기계의 자유의지와 능력이 그 창조자인 인간의 통치권보다 더 우선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항론과의 5대 강령을 빚댄 ‘특이점 인공지능의 5대 강령’

과 ‘틀림 교리’를 다음과 같이 비교했다. ①기계의 능력(Mechanical Ability)과 전적 부패 ②조건적 진화(Conditional Evolution)와 무조건적 선택 ③보편적 교체(Universal Replacement)와 제한적 속죄 ④불가항력적 특이점과 불가항력적 은혜 ⑤기계의 타락(반란) 가능성과 성도의 견인 등이다. 전 박사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는 현 시점에서, 인공지능과 관련해 교회론을 돌아볼 때 ‘도르트 신조’는 우리 교회론에 ‘표준(Canons)’을 제공하고, 이 시대의 표준이 필요하다는 방법론을 제시한다”며 “개혁주의 AI 신경’의 중심 모티프로 칼빈의 ‘하나님의 영광’보다 좋은 것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아래와 같이 ‘개혁주의 AI 신경’을 제시했다. 1. 현대판 선악과인 ‘기계의 능력’에 대한 우상숭배적 신뢰가 아닌, 하나님의 통치권에 대한 ‘전적 신뢰’: ‘기계의 능력’은 목적이 아닌 도구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한다. 2. 새로운 가이아 이론(Neo-Gaia Theory)으로서 기계가 우리를 선택하는 ‘조건적 진화’가 아닌, 하나님만이 ‘모든 축복의 근원을 인정’: 기계 만능주의적 ‘기계의 인간에 대한 선택’을 배격함으로써, 오직 궁극적으로는 하나님만이 선택하시고 유기하시는 분이심을 인정하고, ‘기계의 선택’도 하나님의 도구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한다. 3. 현대판 바벨탑인 무한생명주의(extropianism)와 유토피아적 종말론을 위한 ‘보편적 교체’가 아닌, 구원과 모든 선한 것에 대한 하나님께 의지(依支)와 간구: 천국에서의 영생을 사모함으로써, 기계의 능력에 의지해서 수명을 연장하는 것도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4. 불가항력적 특이점의 도래에 대한 전망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순종’: 특이점주의가 자칫 시한부적

종말론처럼 되어서는 안 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맡기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AI가 사용되기를 기도하고 실천해야 한다. 5. ‘기계의 타락 가능성’에 대한 디스토피아적 불안과 기계에 대한 숭배가 아닌, 하나님께 ‘전신으로 봉사’: 전자 인격(electronic personhood)을 부여받는 AI는 도덕적·법적 책임을 질 수 있는 구성원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전신으로 봉사’하는 도구가 되어야 한다. 전 박사는 “참다운 신앙고백(신조)은 교회를 세우는 기초이자 기둥이므로, ‘개혁주의 AI 신경’은 4차 산업혁명 시대적 상황 속의 교회를 세우는 기초이자 기둥의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이 ‘개혁주의 AI 신경’도 도르트 신경처럼 1-2년에 걸쳐 계속 다듬어지면서, 미래의 기술적 특이점을 개혁교회가 대비하게 되는 ‘사인업(sign-up)’을 넘어 ‘로그인(log-in)’하고, 나아가 ‘로그온(log-on)’하게 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이대용 기자

# 2018 미주기독교대학박람회

**IRUS**  
(International Reformed University & Seminary)

- ABHE 정회원
-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총회 (총회장 김선규 목사)
- WKPC(세계한인예수교장로회)인준 신학교
- I-20 발행 및 각종장학제도
- ESL, 학사, 석사, 박사과정

125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4  
Tel: (213)381-0081, FAX: (213)381-0010  
www.irus.edu, office@irus.edu

**미성대학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 ABHE 정회원, ATS 준회원
- 기독교대학(BA), 목회학석사(M.Div), 상담학석사, 선교학석사, ESL, TESOL
-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자체 발행
- 인수 후 미주 및 한국에서 사역 가능
- 목회학박사 과정 신설
- 입학상담: 조성호 박사 116261227-3454

**미래를 책임지는 미성대학교**  
총장: 류종길 박사, 이사장: 김광수 박사  
1818 S. Western Ave, #409, Los Angeles, CA 90006  
Tel: (323)643-0301, Fax: (323)643-0302  
www.aeu.edu/info@aou.edu, aeumaster@gmail.com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CHONGSHIN UNIVERSITY THEOLOGICAL SEMINARY

캘리포니아주교육국(BPPE)인준 정식 학위 수여  
수시 입학(통신가능),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모집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에서 강도사 거처 목사 안수  
모든 민족종교복음주의 총회에서 목사 안수  
총장: 이동규 박사 학장: PASTOR YOUNG CHOI

978 S. Hoover St #201, LA, CA 90006  
T: (213)386-0300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해외한인장로회 총회 직영신학원  
(한국 장로회 통합측 목사고시, 안수가능)  
I-20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15605 Carmen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926-1023, 4691 Fax: 562-926-1025  
www.ptsa.edu

**미주총신대학교**  
CHONG SHIN UNIVERSITY IN USA

개혁주의 신학의 전통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  
21세기 교회와 세계 선교 사명을 이끌어 갈  
사명자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2975 Wilshire Blvd. #3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487-1010 e-mail: info@chongshinusa.edu  
www.chongshinusa.edu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 TRACS 정회원 인준
- 특 전: Sevis I-20 발행 /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 장학제도
- 성경학 학사 (B.A. in Biblical Studies)
- 목회학 석사 (Master of Divinity)
- 종교학 석사 (Master of Art in Religion)
- 목회학 박사 (Doctor of Ministry)

2660 W. 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 (714)527-0691 (0692) Fax: (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

**솔로몬대학교**

땀과 눈물로써 제자를 심어 복음을 전하자 (마태복음28:18-20)

총장: 박지영 박사 부총장: 브랜트 프라이스 박사  
4055 Wilshire Blvd. #306~308, LA, CA 90010  
Tel: (213)381-7755 Fax: (213)381-5055  
http://solomonuniv.org/

**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

ABHE, TRACS, ATS 정회원  
미국 주류 신학교 학점 인정 및 편입학  
온캠퍼스 & 온라인 프로그램  
신학, 목회학, 기독교상담학 학사/석사/박사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Tel: 213 388-1000 Fax: 213 385-2332  
www.wmu.edu admissions@wmu.edu

**캘리포니아 두란노 대학 신학대학원**

목회학, 신학, 철학박사 California Tyrannus University  
BPPE Ed, code 94874, Sc code 22426  
CEO 학장 김호 박사

1008 S. Kingsley Dr., Los Angeles, CA 90006  
Tel: 213-507-1933

**코헨대학교&신학대학원**

With the world!  
To the world!

17002 S.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el: 424-257-8176 / Fax: 424-257-8136  
www.cohenuniversity.ac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 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대학

신학사(BA), 석사: 기독교 교육학(MA CE),  
선교학(MA ICS), 목회학(M.Div), 선교학 박사 (D.Miss)과정  
연방정부학자금 보조, I-20, 온라인 강의,  
한국어 및 영어 트랙, LA Teaching Site 운영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 (714)525-0088(대표), 515-5885(입학상담)  
이메일: admissions@gm.edu www.gm.edu



# 비바람 속에서 만난 주님 전하는 도구 되고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7) - 김필현 안수집사

어느 시인은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가 울었는 것이라고 노래한다. 그는 천둥과 번개도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필요한 것들이라고 말한다. 우리 인생의 꽃이 피기 위해 밤도, 겨울도 필요하다. 그래서 인생의 지혜를 아는 사람은 인생의 겨울을 보내며 고통 받는 사람들을 떨치나 조롱치 않는다. 모든 인생은 개화를 준비하고 있다.

혹독한 인생의 겨울을 보내고 봄을 맞은 김필현 안수집사(아름다운교회)를 만났다. 그의 인생의 겨울, 인생의 봄맞이, 그리고 봄을 넘어 가을을 준비하는 이야기를 들었다. 지면의 한계를 아쉬워하며 김필현 집사의 인생 계절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 지면에 담는다.

설명할 마땅한 말이 없다. 감감했다. 한치 앞이 보이지 않았다.

그는 야간에 건물 청소를 시작했다. 막다른 골목에서의 몸부림이었다. 밤낮이 뒤바뀐 삶, 난생 처음 해보는 일, 더럽고 추한 것을 닦아야 하는 일 등등 쉽지 않은 일들의 연속이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 화장실 청소였다. 비위가 아주 약한 그에게 변기청소는 너무 너무 힘든 일이었다.

### 교회로 발걸음을 옮기고

생존을 위해서 부부가 일했다. 아내는 식당 일을 했다. 아내는 그리스도인 집안에서 잘 자란 신앙인이었다. 그러나 식당일을 하면서 성수주일은 언감생심 엄두조차 낼 수 없는 상황이었다. 식당일을 나가는 아내가 한 가지 부탁이 있다고 했다. 주일에 아들(케빈)을 데리고 교회에 나가 달라는 것이었다. 감히 아내의 부탁을 거절할 수가 없었다. 꽃가마를 태우지는 못할망정 이런 생고생을 시키는 죄인 남편은 아내에게 순종(?)해야 했다.

아내의 명령(?)을 따라 아들을 데리고 나간 교회가 김필현 집사의 생애 첫 교회인 시온성중양교회였다. 당시 담임목사님이었던 강태원 목사님은 한국에서 군종 목사로 근무했고, 유학생활동 한 후 이민 목회를 하던 엘리트 목사님이셨다. 인자하고 인심좋은 참 좋은 목사님이셨다. 목사님은 김필현 집사의 삶을 안타깝게 여기고 이런 저런 도움을 주려 하셨지만 믿음이 전혀 없던 김필현 집사는 목사님의 사랑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지금 돌아보면 강태원 목사님과 함께 했던 시절에 은혜가 있었다. 그 시절 강 목사님과 함께 기도하며 블라인드 사업을 착상했고 블라인드 관련 사업을 지금까지 하고 있으니 첫 교회인 시온성중양교회와 강태원 목사님을 잊을 수 없다.

### 아름다운교회와 함께한 아름다운 신앙생활

1999년 여름 이사와 함께 아름다운교회(고승희 목사)를 만났다. 고승희 목사님이 성경공부에 참석하기를 권면하는데 별 감동이 없었다. 그래서 차일피일 성경공부 참석을 미루고 있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아내가 한국 방문 중에 식사 초대를 받았다. 목사님과 사모님의 사랑이었다. 식사를 마치고 차를 마시면서



김필현 안수집사(오른쪽)와 아내 김연신 집사(왼쪽)

서 목사님은 목사님택 거실의 벤치를 가져가라고 권하셨다.

강권하시니 갖고 오긴 했지만 마음이 복잡했다. 우선 죄송했다. 목사님택 거실도 웅하니 비어 있는데 굳이 주시는 그 마음을 이해하기 어려웠다. 왜 목사님은 끊임없이 주시려고 하실까? 전혀 다른 고민과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 목사님과 믿음의 사람들이 부럽기 시작했다.

이 사건이 김필현 집사에게는 큰 전환점이 된다.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고 목사님과 선배 신앙인들이 만난 그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열망을 갖게 되었다. 그래서 목사님의 성경공부 초청에 응할 수가 있었다. 드디어 성경공부를 하게 된 것이다. 새신자 성경공부였다. 성경공부를 할수록 더 많은 의문이 생겼다. 그래서 다시 참석했고, 또 참석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은혜를 받는다. 참석할수록 은혜가 넘치는 것이 놀랍다. 아직까지도 참석한다. 죄와 죽음을 그리고 구원의 도리를 수습회 듣고 또 듣는다. 듣고, 듣고, 또 들어도 좋으니 복음이다. 복음의 능력이 온전히 지배하는 삶을 사모하며 듣고 또 듣는다.

###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증거들

하나님을 섬기며 행복한 김 집사 마음에 짐이 있었다. 오래 전 한국에서 부도를 내고 도피한 후 제대로 정리를 못한 일들이다. 2008년 귀국해서 재판을 받았다. 이 피말리

는 시간에 형제들을 찾아가 용서를 구하며 복음을 전했다. 우여곡절 끝에 법정에서 정리가 되었다. 흥분하지만 피해를 준 사람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 평생 지고 가야할 짐이요 아픔이다.

또 다른 짐은 아들이었다. 분주한 이민생활에서 아들을 챙기지 못했다. 아들은 한동안 방향의 세월을 보냈다. 아들의 방향은 말할 수 없는 아픔이었다. 철학같이 어둡고 참혹한 밤들을 밝히며 읽고 또 읽어 암송한 말씀이 벤전 2장19절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이다.

거짓말처럼 아들이 돌아왔다. 아들과 함께 가정예배를 드리고 함께 사업을 한다. 기적 같은 일이다. 그 눈물겨운 기다림의 시간은 준비 기간이었다. 재정의 준비, 영적인 준비 그리고 사업의 비전의 준비가 완벽히 된 때에 응답을 주신 것이다. 하나님은 참으로 멋지신 하나님이다.

### 비전과 기도의 제목

김필현 집사는 몇 가지 꿈꾸며 기도하는 일들이 있다. 우선 더 성숙한 신앙인으로 훈련되기를 기도한다. 말씀 훈련에 매진하는 이유다. 말씀에 훈련되어 말씀을 나누는 사람이 되기를 기도한다. 김필현 집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도구가 되기를 사모한다.

비즈니스맨 김필현 집사는 사업에 종노릇하지 않기를 기도한다. 젊은 날 김필현 집사는 사업에 종노릇했다. 많은 사람들이 사업에 종노릇한다. 그는 하나님을 주인 삼는 기업인이 되기를 기도한다. 그리고 주 재권을 인정하는 모범적 경영으로 선한 영향력을 후배들에게 줄 수 있기를 사모한다.

김필현 집사는 아들과 함께 비즈니스를 한다. 김 집사는 아들에게 유산을 물려주고 있다. 기술, 지혜, 인맥, 그리고 더 중요한 신앙적 경영을 물려준다. 긴 방향을 끝내고 돌아와 신실한 기업인으로 세워져 가는 아들을 보면 감사가 넘친다. 돌아온 아들을 향한 돌아온 아버지의 감사! 아들도, 아내도, 사업도, 교회도 감사하다.

인터뷰 후 돌아오는 기자의 입가에 식위가 흐른다.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 봄부터 소쩍새는 / 그렇게 울었나 보다 //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 또 그렇게 울었나 보다 // 그림고 아쉬움에 가슴 조이던 / 머언 먼 젊음의 뒤편에서 / 인제는 돌아와 겨울 앞에 선 / 내 누님같이 생긴 꽃이여 ...

오늘도 우리 인생의 마당에 바람 불고 비가 오겠지만 국화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참고 기다리기를 기도한다. 우리네 삶에 피워질 국화가 흐드러진 아름다운 날들을 기대하며 기자의 마음에도 노래가 흐른다.

강태광 편집위원

### 승승장구하던 젊은 날의 방향

젊은 날 청년 김필현에게 신앙생활은 판 세상이었다. 군대에서 간부로 근무할 때도, 전역 후 젊음을 쏟으며 사업을 할 때도 자신의 성공과 인생의 즐거움이 최대 관심사였다. 신앙은 감히 끼여들 자리가 없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데도 승승장구하는 것이 문제였다. 전역 후 시작한 부동산 개발 사업은 88올림픽을 전후한 특수상황 그리고 이어진 국가 경제성장에 발맞춰 크게 성공했다. 거침이 없었다. 요즈음 젊은이들의 표현으로 너무 잘 나갔다. 잘 나가는 청년 사업가는 만날 사람도 접대할 사람들도 많았다. 청년 사업가 김필현은 매일 화려한(?) 밤을 보냈다. 삶은 엉망진창이었지만 잘 나가는 삶은 그러려니 했다.

### 감감한 밤중을 보내며

잘 나가던 김필현의 인생에 위기가 찾아 왔다. 무리한 사업 확장이 문제였다. 자금 조달에 문제가 생겼다. 갑작스럽게 찾아온 위기는 견잡을 수 없었다.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고 했던가? 끝없는 낙락으로 추락한다. 부도였다. 1994년 4월에 최종 부도처리를 하고 미국으로 도피를 한다. 엄청난 상황에서 감당해야 할 일들이 엄두가 나지 않았다. 그러나 도피한 미국의 삶은 더 막막했다. 아무 대책이 없었다. 오갈 곳도 없었다. 궁여지책으로 친구 동생네 거실에서 기거했다. 친구도 아닌, 친구 동생의 집에서 더부살이! 기가 막혔다. 면목 없고 답답하고 캄캄하고... 그 상황을

## 함께 걷는 교회 개척감사예배

### Walking in Unity church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함께 걷는 교회가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개척 감사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걷는 교회 박 훈 목사 드림

함께걷는교회 집회안내  
주일예배 1:30pm  
새벽기도 5:30am (월~토)

- 일시 : 2018년 6월 10일(주일) 오후 3시
- 주소 : 6102 Stanton Ave, Buena Park, CA 90621
- 연락처 : T.(213)598-9130







# 미디어의 영적실상

## Spiritual Reality Behind Media

SBS "생활의 달인"  
이상호 PD

**강의 주제**

**현직 PD가 밝히는 미디어의 숨겨진 실체와 중독,  
그것이 노리는 가장 큰 타겟은 바로 우리 자녀들입니다!**

“Media Addiction” No guarantee that even my children are free.  
why is this a serious problem for the youth?

**일시** : 2018년 6월 13일(수)~6월 17일(일)  
**목적** : 미디어, 각종 중독에 빠져 있는 자녀보호  
**취지** : 하나님 가정으로 회복

**집회일정**

6월 13일(수)	오후 7시	코너스톤교회 (담임목사 이종용)
6월 15일(금)	오후 7시	LA씨티교회 (담임목사 써니 김)
6월 16일(토)	오전 6시 30분	선한목자교회 (담임목사 고태형)
6월 16일(토)	오후 7시	미주비전교회 (담임목사 이 서)
6월 17일(일)	오전 11시	얼바인 중앙장로교회 (담임목사 이기업)
6월 17일(일)	오후 2시	얼바인 온누리교회 (담당목사 권혁빈)



강사  
**이상호**  
SBS PD

- 온누리 교회 안수집사 Senior Deacon of Onnuri Church
- SBS PD / 차장 PD, Vice Director SBS
- <꾸러기 탐구생활> Mischievous boy's expedition
- <생활의 달인> Master Of Life
- 한국 기독교 언론인 협회 총무 General Secretary of Korean Journalists Association
- <SBS 기독교신우회> 회장 Chairman of SBS Christians Club
- 두란노 <빛과 소금> 자문위원 Member of Advisory Committee of Duranno "Light and Salt"
- <미디어군대> 리더 Leader of Media Troops
- 미디어 선교사 Media Missionary

- **주최** : 아이비 유학
- **협력** : 코너스톤교회, 얼바인 온누리 교회, 미주비전교회, LA씨티교회, 선한목자교회  
기독교일보, 미주복음방송, 샬롬센터, ABC 상담대화교육원, 크리스천 헤럴드 TV CHTV 56.9  
셀라케어 M3, 도르가 기독교 백화점, 푸른초장